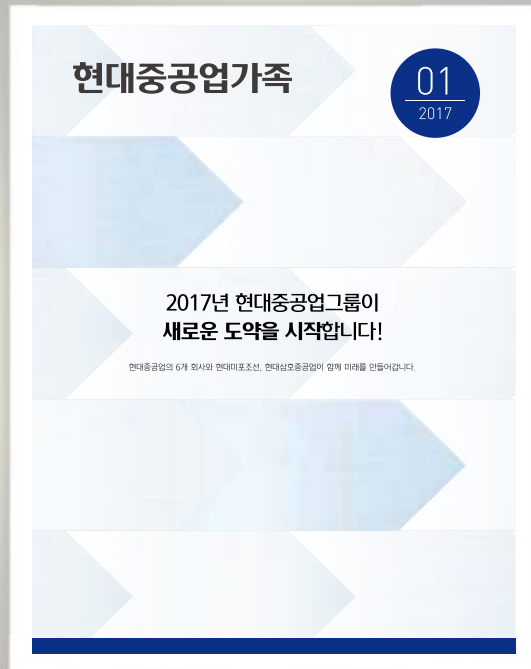


2017년 현대중공업그룹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현대중공업의 6개 회사와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Cover Story



2017년 정유년(丁酉年)을 밝히는 희망의 태양이 솟아올랐습니다.

올해는 현대중공업그룹에 많은 변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현대글로벌서비스 등 6개 회사로 분리돼 사업별 경쟁력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도 최악의 수주절벽에 맞서 비용 줄이기와 틈새시장 개척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합니다.

올해는 지난해 있었던 굵은일과 얇은 것들을 모두 버리고, 희망차고 새로운 것들로 채워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통합 사보 '현대중공업 가족' 역시 더욱 알찬 소식들로 사우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휴식을 전할 수 있는 매체가 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중공업 가족'을 만드는 사람들

현대중공업 문화부 홍보과·커뮤니케이션부팀 홍보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052)202-2236~9

현대미포조선 홍보과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 ☎052)250-3306/3319

현대삼호중공업 문화홍보과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3 ☎061)460-2174

2017 / 01

Contents



기획

2017 위기 극복에 지혜 모은다

04 신년사

10 이렇게 뚫다!

16 새해에는 어떤 일들이

18 사우들의 새해 다짐

20 트렌드 따라잡기

사람 · 일

22 뉴스 포커스

합작 조선소 사우디 국가 사업화
노사 화합으로 선박 수주

24 현장을 가다

현대미포조선 건조1부 건조1팀

28 우리 부서 미나사보

현대중공업 자산운영부



24



36



46



48



50

- 30 이달의 인물**
현대중공업 고아원 후원회 회장
바이올렛 우 씨
- 32 사보가 전해드립니다**
현대미포조선 기술사 관리인 ·
(주)한영선박 사우에게
- 34 아빠의 도전**
매일 물 2리터 마시기 도전
- 36 그룹사 탐방**
① 현대중공업터보기계(주)
- 38 세계를 가다**
① 그리스
- 40 그때 그 시절**
1977 · 1987 · 1997 · 2007년 1월

지역 · 삶

- 42 이달의 모임**
현대중공업 청사도회
- 44 울산 지역 소식**
울산과학대학교 아이스하키 강좌,
울산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체험 활동
- 46 만나보았습니다**
못난이 조각가 김판삼 씨
- 48 맛있는 이야기**
겨울 별미 매생이
- 50 자녀와 함께**
한국조폐공사 경산 화폐본부
- 52 가볼만한 곳**
울산 성남동 '큰이야시장'
- 54 사랑을 나눕시다**
울산 동구 화정동 공부경 할아버지 부부
- 56 건강칼럼**
간질성폐질환

- 58 나를 만나는 시간**
새해 목표 세우기

보람의 일터

- 60 회사 주요 소식**
- 64 그룹사 소식**
- 66 문화 포커스**
- 68 축구단 소식**
김도훈 신임감독 인터뷰
- 70 현대예술관 추천 강좌**
키즈케어 아카데미
- 71 현대중공업 가족 글마당**
- 78 사우들의 추천 도서**
- 80 생활법률**
- 81 만화**
- 82 쉬어가는 페이지**



“현대정신 되살려 위기를 넘어섭시다!”



친애하는 현대중공업 가족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희망과 축복
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6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현대중공업 가
족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조선과 해양플랜트 등 주력사업의 업
황 회복 조짐은 보이지 않고 경쟁은 더욱 치
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안팎으로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는
우리 내부를 한시 바빠 안정화시키고, 혁신
을 통한 경쟁력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중공업 가족 여러분,

올해 우리 회사는 매출 14조9천561억원의 경
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혹독한 외부환경으로 인해 매출 규모는 10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만, 우리가 경영계획
을 달성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노력한다면
당면한 일감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이를 넘
어 다시 재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
각합니다.

이에 회사는 지금의 위기를 넘어서겠다는 굳
건한 마음을 담아 2017년 슬로건을 ‘현대정
신, 위기 돌파!’로 정하고, 다음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해 우리 회사에서는 적지 않

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중심은 생산현장이며, 생산현장에서의 사고
는 회사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임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
는 경영정책을 통해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회사 고유의 안전문화를 반드시 정착시키겠
습니다.

안전의식은 늘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합니
다. 임직원 여러분들도 나와 동료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명심하시고, 안전사고 예방에 모
든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익성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불투명한 대외 환경에서는 영업력을 강화하
고 근본적인 경영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일감 확보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업체 간의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고객
이 우리를 찾을 수밖에 없도록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영업 활동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맞게 기존 시장의 확대
는 물론이고, 각 사업본부별 독자적인 미래
성장동력을 찾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 공법과 설계를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여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조직과 인
력, 투자, 비용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하

경영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노력한다면
당면한 일감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이를 넘어
다시 재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 낭비요소가 없는 최적의 체질을 갖추야 합니다.

도크를 비워야 하는 최악의 일감 부족 상황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난해 11월 조선과 해양플랜트, 엔진사업 중심의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현대글로벌서비스 등 6개 독립회사로 분리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장기화되고 있는 불황 속에서 각 사업의 역량과 가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결정한 것입니다.

지난달 출범한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선박 서비스와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해 사업영역을 지속 확대하며, 세계 최고의 선박·해양 전문서비스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와 건설장비사업본부, 로봇사업부도 오는 4월까지의 사업분리를 통해 사업 특성에 맞는 독립적인 경영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기존 경영체제에서 발생하던 비효율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업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겠습니다.

조선과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역시 사업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해 대외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 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본원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옛 명성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조직 및 임직원 간의 소통과 화합의 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가장 확실한 경쟁력은 우리 임직원의 단합과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현 상황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직 간, 구성원 간의 장벽을 허물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드는데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회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 간의 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선진적 노사관계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친애하는 현대중공업 가족 여러분!

올해도 경험하지 못한 여러 도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변화를 수용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그 변화의 주체가 되어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책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임직원 모두가 현대중공업의 주역으로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열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년인 올해는 닭의 해입니다. 새로운 아침을 알리는 우렁찬 새벽 닭 울음 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한 굳은 다짐이 우리의 희망찬 출발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3일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강 환 구

올해도 경험하지 못한

여러 도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변화를

수용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그 변화의

주체가 되어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책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희망찬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전합시다”



친애하는 임직원 및 협력사 사우 여러분!

2017년 정유년(丁酉年), 희망찬 새해를 맞아 미포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벽 출근길 생산현장을 둘러볼 때면, 언제나 남보다 먼저 나와 미리 작업장을 정리하고 동료들의 안전을 챙기는 많은 사우들의 활기찬 모습이 눈에 띕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미포인들의 저력임을 새삼 깨닫게 됐으며, 저 또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한 해의 시작에 앞서 굳은 각오와 결의를 다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보호 무역주의 그리고 유럽 및 중국의 성장둔화 등 더욱 불확실한 상황이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조선업계는 일감확보를 위한 수주경쟁이 심화됨은 물론 중국 및 일본과도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대부분의 조선소가 극심한 일감부족에 시달리며 오직 살아남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업의 경쟁력 차이는 더욱 확연히 드러나기 마련이어서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앞날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경쟁력을 갖추야 한다는 과제

를 안고 새해의 출발선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임직원 및 협력사 사우 여러분!

회사는 올해 여러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향후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건조 척수는 용골거치 기준으로 40척으로 정했으며, 매출 목표는 2조3천억원으로 설정해 내실 강화와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 더욱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해에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무재해로 행복한 일터 조성 ▲생산성 향상을 통한 수주경쟁력 강화 ▲신기술·신선종 개발로 일감 확보 ▲소통과 협력의 기업문화 정착을 올해의 경영방침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같은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포가족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회사의 성장과 발전은 결국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것이며, 그 행복의 가장 첫 번째 요건이 바로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입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지켜주는 안전이야말로 회사 존립의 근간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안전요원’이라는 마음가짐

“어려운 때일수록

기업의 경쟁력 차이는

더욱 확연히 드러나기 마련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앞날은 달라질 것”

으로,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챙기고 책임짐은 물론, 동료의 안전도 지키 자신처럼 함께 지킨다는 자세로 무재해 작업장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음가짐부터 새롭게 갖도록 합시다.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가 국내 조선업계로서는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수주절벽으로 인해 우리 회사를 비롯한 국내 대부분의 조선소가 일감부족으로 생산물량을 크게 줄여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무엇보다 비상한 각오와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방안을 다른 곳이 아닌 나에게서, 우리에게서부터 찾아 주십시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셋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합시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지 못해 사라진 많은 기업들의 사례를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과 시장에 맞춘 선제적인 대응자세가 중요하며, 과거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누구나 성과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원칙을 세우는 한편, 그에 걸맞는 제도를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기쁨도 어려움도 함께 나눕시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어려움은 나눌수록 가벼워집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된 목표를 위해 노사간, 부서간, 직종간, 직급간 모든 장벽을 허물고 힘을 하나로 모아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냅니다. 우리의 일터가 더욱 신바람 나고 보람된 삶의 근원

이 될 수 있도록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문화도 더욱 발전시켜 나갑시다.

특히 그동안 다져온 신뢰의 노사문화라는 튼튼한 토대 위에서 전 임직원들이 함께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소중한 일터로 바꾸어 갑시다.

존경하는 임직원 및 협력사 사우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유년(丁酉年), '닭의 해'입니다. 닭은 예로부터 새벽의 여명을 알리며,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적 삶의 시작을 예고하는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미포 가족도 올 한 해는 지난해와 다른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출발합시다!

쇠는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듯 우리는 그동안 시련과 고난이 클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욱 크게 성장한 자랑스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올해를 오히려 우리는 중형 선박 분야에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입지를 굳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지만, 우리가 가야할 목표는 분명한 만큼 이제 하나된 마음과 결연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한 걸음씩 전진해 갑시다.

2017년 새해 아침,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길 소망합니다.

새해 복(福)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쇠는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듯
우리는 그동안 시련과
고난이 클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욱 크게 성장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3일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사장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시다”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정유년, ‘닭의 해’입니다. 새벽을 부르는 닭의 울음소리처럼 새해에는 우리 조선산업도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희망의 새날이 밝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현대삼호가족 여러분!

지난해 수주절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우리 조선산업은 올해도 힘든 한 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감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많은 조선사들이 물량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6년 발주량이 워낙 적었던 탓에 올해 상황이 다소 호전되더라도 여전히 절대 발주량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이러한 시장 상황을 감안해 올해 총 30척의 선박을 건조해 매출 2조7천억원을 달성한다는 경영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수주 목표는 조선과 산업설비 등 총 25억불로, 이 정도 물량은 되어야 내년 2018년도 올해와 비슷한 일감 확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대삼호가족 여러분!

회사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1등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경영방침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하고 보람찬 일터 조성입니다.

직장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보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재해를 줄이고, 중대재해는 아예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회사에 창의와 열정이 넘치고,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기본과 안전에 충실한 내실 있는 회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주 부진으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마른 수건도 다시 찢는 마음으로 업무 전반적으로 낭비 제거와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부환경만 탓해서는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내실을 키우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회사도 지난해 개편된 포상제도를 활용해 여러분의 노력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최고의 품질과 고객 감동을 실현해가야 합니다.

강력한 원가 경쟁력과 선주를 만족시키는 최고 품질의 선박 건조만이 회사를 살리는 열쇠입니다.

문제 발생 후 대처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보다 사전 예방활동 강화를 통해 고객 감동을 실현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현대삼호가족 여러분!

2017년 우리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바로 고용 안정과 물량 확보입니다.

무엇보다 고용 안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수주 추이를 보이며 인력과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위기에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외부환경만 탓해서는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대신 내실을 키우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선박 수요가 나타났을 때, 준비된 회사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2017년이 꿈과 희망으로 채워지는 멋진 날들이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현대삼호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수요가 나타났을 때,

준비된 회사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3일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윤 문 준**

사업별 경쟁력 높여 재도약 발판 마련

지난해 사상 최악의 수주 부진을 겪은 현대중공업은 올해도 어려운 대외환경으로 인한 험난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일감 부족이 본격화됨에 따라 긴장의 고삐를 단단히 매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사업분할을 통해 각 사업의 본원적인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헤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대중공업 각 사업본부의 2017년 경영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 전략을 살펴본다.



조선

안전과 품질 최우선 문화 정착
원가 절감 및 기술력 강화

조선사업본부는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구현'을 올해 사업운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했다.

이를 위해 '12대 절대수칙'을 습관화해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회사 고유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적극적인 안전개입도 생활화한다. 특히 동료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불안정한 행동이나 자세를 고쳐주는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정(正)품질 확보를 통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작업표준에 따라 올바르게 작업하면 품질은 물론, 공정도 맞출 수 있다'는 생각으로 품질완성책임제를 더욱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산현장의 작업성과 안전사고 가능성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해 생산 품질을 높이고, 설계의 완성도를 높여 생산 공정도 안정화한다.



마지막으로 원가 절감과 기술력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설계는 강재물량 절감, 의장재 사양과 시스템 개선을 통한 원가 절감을 추진하고, 생산은 생산성 향상과 전체 효율 우선의 공정관리 정착에 노력할 방침이다.

또 선박 설계 기술, 생산 기술, 엔지니어링 기술 등 핵심 기술의 경쟁력을 계속 키워 나가는 한편, 극지 운항 선박과 차세대 드릴십 같은 신제품 개발, ICT기술을 적용한 생산 체계 혁신 등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플랜트사업본부 해양사업부문은 저유가 등 요인으로 어려워진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안전과 품질을 기반으로 한 성공적 공사 수행과 신규 수주 달성을 올해의 최우선 목표로 정했다.

지금처럼 어려운 대외환경에서 신규 수주를 위해서는 현재 수행 중인 공사들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고객들로부터 경쟁력을 인정받고 신뢰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해양사업부문은 품질과 안전관리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공기 준수를 위해 전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인의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수행 공사를 목표 일정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주력한다. 이와 함께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공사 수행 능력을 높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흑자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행한 대형 해양 공사 경험을 바탕으로 신사업으로 유망한 Near-Shore(근해) FLNG 사업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한다. 신사업 관련 기술 개발은 물론 주요 발주처 및 엔지니어링사와의 다양한 협력을 진행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
성공적 공사 수행으로
신규 수주 달성

해양플랜트사업본부 플랜트사업부문은 올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사우스 및 슈케이크 발전소의 완공 일정 준수에 모든 자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원활한 현지 공사 수행을 위해 사업대표가 현장에 상주하며 현장 중심의 경영을 펼치고, 발주처 및 협력업체와의 협업도 한층 강화한다.

또 공구별 시공 책임제 및 시운전 성능보장 특별팀 운영 등 현장조직 강화를 통해 공사 마무리에도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수행 공사의 예산 내 집행과 추가 손실 방지를 통해 흑자를 달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잔여 공정과 예산을 면밀히 점검하고, 클레임 보상 등 자체 손익 개선을 위한 세부 계획도 추진한다.

각 부문별 사업 역량을 강화해 경쟁력 우위 확보에도 나선다. 특히 보일러설비사업의 사업조직을 강화해 중심 사업으로 육성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국내외 현장의 안전을 위해 모든 지원을 쏟고, 구성원 간의 친화화 소통 강화를 통해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플랜트
공사 일정 준수에 자원 집중
예산 내 집행으로 흑자 전환



엔진기계 수주 목표 달성에 총력 손익 우선 경영



엔진기계사업본부는 올해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 공격적인 영업전략을 시행한다. 특히 기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와 함께 IPP(민자발전)사업, 힘센엔진 추진시스템 등 신규 시장 진출에도 힘을 방침이다. 또한 신제품 개발로 고객의 니즈(Needs)를 만족시킴으로써 수주 물량 확대를 추진한다.

손익 우선 경영도 펼친다. 사업구조 재편성과 제품 개선, 재료비 절감, 비효율 공정 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이익을 증대하고, 본원적인 설계 개선으로 경쟁사들과 차별화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안전을 제일로 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무사고 작업장을 구현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미래 기술의 집중 육성과 투명한 품질문화 구축에도 나선다. 환경 규제에 대비한 친환경 엔진을 개발하고, 새로운 엔진 연료 관련 기술 선점을 위해 노력하며, 품질경영을 강화해 품질실패비용 제로와 고객 신뢰 강화도 추진한다.



전기전자 사업구조 개편으로 경쟁력 강화

전기전자사업본부는 올해 독립법인인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주) 출범과 함께 수주산업 방식의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사업의 특성에 맞는 운영체제와 인프라를 구축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표준양산품, 시스템 솔루션 등의 사업 분야를 강화하고, 업무 영역별 전문 인력을 육성해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는 데도 노력할 계획이다.

전기전자는 올해 수주 목표를 지난해보다 18% 신장한 22억9천만불로 세우고, 매출은 2조 4천억원, 영업이익은 1천500억원을 목표로 설정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 시장에서의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원가 혁신 모델 개발, 생산 합리화 및 설계 표준화 등 고강도의 원가 절감에도 나선다.

또한 ICT 융복합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신뢰성시험센터 준공으로 제품의 품질 및 경쟁력을 높이는 등 연구개발에도 힘쓴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산학협동을 강화하고, 유럽 연구소 설립을 통한 글로벌 R&D 네트워크도 확장한다.



건설장비 '현대건설기계' 원년, 새로운 도약

건설장비사업본부는 현대건설기계(주)로의 독립사업체제를 확립하고 품질과 영업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선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해외 딜러망 강화와 국내 시장 점유율 향상을 통해 글로벌 매출을 높이고 영업이익 흑자도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품질과 기술개발 등 기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

ICT 기술을 접목한 신제품 개발과 고객의 편의성과 연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생산혁신 프로젝트(Hi-S)를 추진해 생산라인의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도 도모한다.

한편, 독립법인의 안정적인 자금 운영을 위해 매출채권, 재고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신뢰성 센터 건립 등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추진한다.

로봇사업부는 독립법인인 현대로보틱스(주)가 출범하는 올해를 로봇사업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객별 특성에 맞는 로봇 제품을 특화하고, 생산성과 품질을 높여 글로벌 로봇 시장의 선도 업체로 거듭난다는 각오다.

또한 ICT 기술을 접목해 로봇 상태를 진단하는 기술 적용 등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중국 토종 우량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거대시장인 중국 시장 확대도 꾀한다.

이밖에 차체조립용 로봇과 LCD 이송용 로봇 모델을 다양화해 시장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도장로봇, 진공로봇 등의 신규 산업용 로봇을 개발해 신규 시장 창출에도 힘쓴다.

또한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 신기술을 적용한 차체 실링용, 알루미늄합금 용접용, 제판품 용접용 로봇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고객사와 함께 나설 예정이다.



로봇 고객별 제품 특화 통한 로봇사업 도약의 원년으로



중앙기술원은 사업본부의 수주 경쟁력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객의 요구 및 각종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적 기술개발로 지속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개발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실증 연구를 강화해 제품의 성능과 품질 리스크를 예방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급 '혁신과제'를 발굴·추진해 회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융복합 기술개발을 통해 ICT 기반의 혁신적 제품 개발에도 힘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가스선 및 가스추진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신제품 개발, 원가절감형 해양플랜트 설계 및 생산기술 개발, 스마트 생산시스템 구현 기술개발 등 제품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자 한다.



중앙기술원 혁신과제 발굴로 지속 성장 기반 마련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주)

위기 관리자립 경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 체제 확립

지난해 12월 21일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에게 2017년은 매우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그린에너지는 치열해지는 업체 간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위기 관리 및 자립 경영을 주요 경영방침으로 내세워 지속 가능 경영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 개척, 연구 개발, 운영 프로세스 등 전 분야에 걸친 극한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설 법인의 민첩한 의사결정 능력을 활용해 수급 조절과 적기 투자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고효율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을 높여 영업이익을 개선한다.

이밖에도 그린에너지는 임직원 개개인이 주인 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에도 힘을 예정이다.



현대글로벌서비스(주)

원스톱 AS 서비스로 '서비스 전문 기업' 도약

현대글로벌서비스는 '고객 및 시장' 맞춤형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조직과 사업체제 기반 조성을 올해 최우선 목표로 정했다.

특히, 조선엔진·전선의 서비스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서비스 패키지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빅데이터 기반의 고부가가치 신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로 서비스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사업도 착수한다.

또한 부산 본사를 중심으로 유럽과 미주, 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 지역별 거점을 확보하여 고객 밀착형 영업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아울러 독립법인의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결정 체계를 활용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세계 정상의 선박해양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힘차게 출발해 나갈 것이다.



현대미포조선

선종 다변화로 틈새시장 개척, 일감확보 매진

노사가 힘을 모아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에게도 수주절벽에 따른 일감 부족 문제는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다. 현대미포조선은 올 한 해 일감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품질 제고, 납기 준수, 비용 절감 등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에 전 부문이 함께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건조 물량 감소에 따른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현대미포조선은 올해 용골거치(K/L) 기준으로 전년보다 24척이 줄어든 40척의 선박을 건조할 계획이다.

선종별로는 석유화학제품운반선(PC) 23척, LPG운반선 8척, LEG운반선 4척과 RO-RO선, 컨테이너운반선, 아스팔트운반선, RO-PAX, 벌크선 각 1척이다.

건조 척수가 줄어드는 만큼 조립 물량도 전년 50만6천여톤에서 올해는 31만여톤으로 4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 역시 전년 보다 30% 이상 감소한 2조3천억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일부 도크는 개조사업을 병행하거나, 사외 공장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전용 송전선로 구축을 비롯해 도크 게이트 교체, 고효율 LED 조명등 교체, 냉난방 자동화 설비시스템 구축, 잔교식 안벽 보수 등 그동안 생선활동으로 인해 미뤄왔던 설비 보완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에코십 개발 등 선종 다변화로 불황극복 박차

현대미포조선은 안정화된 생산 공정을 바탕으로 블록 대형화,

자동용접 확대 적용 등 공법 개선을 통한 수익성 제고와 안정적인 일감 확보, 미래 먹거리 발굴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수주 목표는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축소된 40척, 16억3천만 달러로 수립했으며, 소형 LNG선, LNG병커링선 개발 및 건조 등 틈새시장 개척을 통해 PC와 가스운반선에 편종된 선종 구성을 다양화해 불황 극복에 적극 대처한다.

새로운 도전을 통한 틈새시장 개척에도 나선다.

오는 2월 세계 최초로 고망간강이 적용된 LNG 이중연료 추진 선박을 착공하고, 8월에는 인천-중국 웨이하이 항로에 투입될 RO-PAX 건조에 나선다. 11월에는 지난해 독일 '솔테'로부터 수주한 LNG병커링선이 착공 된다.

이밖에도 포스코와 LNG 탱크 설계 및 시공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한편, 스테인리스강이 적용된 화학제품운반선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등 선종 다변화를 통한 활로 개척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현대미포조선은 올 한 해도 무결점 선박 건조로 기존 고객과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내실을 높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세계 1위 경쟁력 확보 위한 내실 다지기 전력

지난해 흑자를 달성하며 경영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한 현대삼호중공업.
올해는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작업 물량을 확보 연속(永續)기업으로서
가능성을 시험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올해 전년 대비 70% 수준인 2조7천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30척의 선박을 건조할 예정으로 지난해 이후 저유가 기조로 발주가 많았던 탱커선(73%, 22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PCTC, LPG선, LNG선 등도 건조한다. 조립 물량은 지난해보다 27% 감소한 71만톤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새로운 환경규제 발표에 발맞춰 질소산화물(NOx) 및 황산화물(SOx), LNG 연료 등을 적용한 선박을 연속 건조해 친환경선박 건조 시장에서 선두 주자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핵심 경쟁력 키워 위기 극복

현대삼호중공업은 올해도 극심한 수주난으로 작업 물량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실 경영과 강력한 원가 경쟁력 확보만이 추가 수주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회사에 일감이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대삼호중공업은 내부 공정 효율을 높여 수익성을

확보하고 품질 강화를 통해 고객감동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도크별 전문선종 지정으로 효율적으로 공장을 운영해 시황이 추가로 악화되는 상황에도 대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야드 조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S 클린 작업공간 구현과 7대 낭비 제거 활동(과잉제조, 대기, 운반, 가공, 재고, 동작, 불량)을 지속해 회사의 체질 변화를 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16년에 이어 재고감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2015년 대비 2016년은 6개월 초과 재고 자재를 95% 이상 감소시켰으며, 올해는 3개월 초과 자재를 제로화 함으로써 회사의 수익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작업장에서 불안전 행동 근절 운동을 강화해 성숙한 안전문화를 조성, 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2017년에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혁신을 통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한 조선사로 도약할 계획이다.

한 눈에 보는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밝히는 희망찬 태양이 떠올랐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올해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신제품·신기술 개발에 앞장서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각 사에서는 올 한 해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을지, 주요 일정들을 정리해 보았다.

- **현대중공업**, 소형(8만㎥급) LNG-FSRU(부유식 LNG저장재기화 설비) 개발
- **현대중공업**, 사우디 제다사우스(JSTPP) 중유 발전소 준공
- **현대중공업**, 원가절감형 고압인버터 출시
- **현대중공업**, 저압인버터 신제품 양산 착수
- **현대중공업**, 라스베이가스 콘엑스포(Conexpo) 전시회 참가
- **현대중공업**, 45주년 창립기념일(3.23)

- **현대중공업**, 해양 아스타한스틴(Aasta Hansteen) 공사 하부구조물 출항
- **현대중공업 로봇사업부**, 대구 테크노폴리스단지 신공장 이전

- **현대중공업**, 해양 버가딩(Bergading) 공사 출항
-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부설연구소 등록
- **현대미포조선**, 고강강간 적용 선박 착공

1월



현대중공업 아스타한스틴 공사

2월



사우디 슈웨이크 발전소

3월



사우디 제다사우스 발전소

건설장비 콘엑스포 전시회 참가



7월



- **현대중공업**, 해양 오토투(Odoptu)-2 공사 (9개 모듈) 출항
- **현대중공업**, 추진용 이중연료(Dual Fuel) 엔진(모델명7H22CDFP) 선급 인증(TAT)
- **현대일렉트릭**, 한전 154kV 자순실 변압기 개발
-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2017 인터솔라 북미 전시회 참가

8월



- **현대중공업**, 사우디 슈웨이크(SSPP) 중유 발전소 준공
- **현대중공업**, 용접하게대학 실시
- **현대일렉트릭**, 품질신뢰성센터 준공
- **현대건설기계**, 국내 3톤급 경제형 엔진식 지게차 출시
- **현대미포조선**, 로팩스(RO-PAX) 착공

9월



- **현대중공업**, 힘센(HIMSEN)엔진 생산 누계 3천만마력 달성

- **현대중공업**, 해양 바로니아(Baronia) 공사 출항
- **현대중공업**, 16톤급 대형지게차 출시
- 독립법인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주) 설립
- 독립법인 **현대건설기계**(주) 설립
- 독립법인 **현대로보틱스**(주) 설립

4월



- **현대중공업**, 노르웨이 노르시핑(NOR-SHIPING) 전시회 참가
- **현대중공업**, 해양 아스타한스틴(Aasta Hansteen) 공사 상부구조물 출항
- **현대중공업**, ITER(국제핵융합실험로)에 초전도 자석(TFCS) 첫 납품(2세트)
- **현대건설기계**, 유럽형 Heavy duty 휠로더 신모델 출시
- **현대삼호중공업**, 어버이날 효도잔치

5월



노르디시핑 전시회

- **현대중공업**, LNG 발전선, 신형(Single Layer Winch) 드릴십, 선박경제운항시스템 개발
- **현대중공업**, 3천톤급 잠수함(장보고-III) 3번함 착공
- **현대중공업**, 이단과급(Two Stage Turbo Charger) 고효율 클린(CLEAN) 엔진(모델명: 12H32CV) 선급 인증(TAT)
- **현대일렉트릭**, 중소형 변압기(170kV 이하) 원가혁 신 모델 개발

6월

▼ 장보고함 개념도



바로니아 공사



현대삼호중공업 어버이날 효도잔치



사랑의 기증품 판매전

10월

-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 사랑의 기증품 판매전
- **현대미포조선**, 42주년 창립기념일(10.1)
- **현대삼호중공업**, 18주년 창립기념일(10.27)
- **현대삼호중공업**, 하반기 핵심혁신활동 발표회



LNG병커링선 조감도

11월

- **현대중공업**, 차기 군수지원함 '소양함' 인도
- **현대중공업**, 기술컨퍼런스 개최
-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305W급 TWC-PERL 고효율 모듈 제품 출시
- **현대미포조선**, LNG병커링선 착공
- **현대삼호중공업**, 행복한마당 봉사활동



12월

-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 사랑의 김장담그기
- **현대중공업**, COGES(Combined Gas turbine Electric & Steam) 적용 선박 개발
- **현대일렉트릭**, 유럽연구소 설립
-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315W급 고효율 n타입 양산형 공정 기술 개발

새해, 새로운 희망, 새로운 다짐!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다.

우리 사우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2017년의 문을 열고 있을까?
희망으로 가득한 사우들의 힘찬 새해 다짐을 들어보았다.

헌혈 400회 돌파를 향해!



매년 20여회씩 헌혈을 한 저는 지난해까지 누적 헌혈 횟수 390회를 기록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유공장도 받게 돼 무척이나 뿌듯했습니다.

2017년에도 꾸준히 헌혈을 해 400회를 넘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헌혈을 계속 하려면 스스로 건강관리도 열심히 해야겠지요.

더불어 올해는 산업안전기사와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획득해 직무능력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철저한 계획과 점검으로 목표한 바를 꼭 이루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H 김남수 기원(54세, 현대중공업 군산안전보건부)

나의 발전이 곧 회사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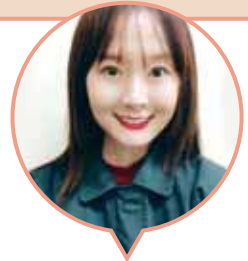
시황 악화로 인한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2017년을 만들겠습니다.

빨라진 퇴근 시간을 이용해 공부를 해 올해 안에 2개의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가꾸기 위해 사이버교육 등을 활용하여 어학 공부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회사 구성원 모두가 조금씩 발전하며 우수 인재로 거듭난다면 회사가 발전하고, 불황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M 장지우 과장(35세, 현대미포조선 기장설계부)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는 한 해로



안전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동안 정작 제 자신의 공부에는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자격증 두 개를 취득하고, 기타를 배워 다섯 곡을 완주하겠다는 목표를 다이어리에 적었습니다.

항상 거창한 목표로 새해를 맞이했지만, 해를 마무리할 때는 허무함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17년의 마지막 날에는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S 김예은 사우(29세, 현대삼호중공업 안전보건부)

“주 대리에게 믿고 맡겨주세요!”



2017년은 대리로 진급해 맞이하는 첫 해입니다. 처음 달아보는 ‘대리’라는 호칭이 신기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새해에는 ‘대리’라는 직급에 어울리게 업무를 능숙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관련 공부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체력이 있어야 공부도 업무도 제대로 할 수 있기에, 운동도 꾸준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H 주 미 대리(31세, 현대중공업 해양계약운영부)

더욱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새해에는 좀 더 부지런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사무실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선배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부서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모두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모두가 깔끔한 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곳은 일도 도맡아 솔선수범하는 막내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함께하지 못한 가족과 여행도 다니려고 합니다.

현대중공업그룹 가족 모두 행복한 2017년 되시길 기원합니다.

M 강덕희 사원(23세, 현대미모조선 공사지원부)

“우린 더 강해질 겁니다!”



지난 2016년은 조선업 불황, 수주 감소, 일감 부족 등으로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일 년 내내 우리를 힘들게 한 요인들에게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우린 하나로 뭉쳐 더 강해질 것이다!”

2017년에는 현대중공업그룹 가족 모두가 마음을 모아 빛나는 시절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회사의 재도약에 힘을 보탬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정종욱 사원(44세, 현대삼호중공업 협력회사 (유)태양)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고파



사람의 진정성은 그의 말이 아니라 삶으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저 역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실한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짧은 기간에 이룰 수 없는 꿈이지만, 10년 뒤, 20년 뒤에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2017년 새해부터 꾸준히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쾌한 주파수를 보내며, 차근차근 진정성 있는 삶의 궤적을 그려가겠습니다!

H 정영훈 사원(21세, 현대중공업 건설장비조립부)

2017년, 불편을 즐기는 사람들에 주목하라!

어제와 오늘을 읽고 내일을 그려보는 것을 우리는 트렌드라고 한다.
정유년(丁酉年) 새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자발적 불편'이다.
어려운 대외환경으로 인한 고통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태도가 사회를 이끄는 트렌드가 될 전망이다.

참고 서적 라이프 트렌드 2017(김용섭 著) / 트렌드 코리아 2017(김난도 외)

올로(YOLO)! 오늘만 사는 낭만적 현실주의

'올로(YOLO)'는 'You Only Live Once'의 줄임말로 '한 번뿐인 인생이니 현재를 충분히 즐기라'는 의미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혼돈의 시대, 나중을 위해 현재를 유보하는 것보다,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며 그날의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는 이 '올로'의 자세가 새로운 소비 형태를 만들고 있다.

집을 사기 위해 지금 무언가를 참기보다는, 월셋집에 살더라도 머무는 동안의 행복을 충분히 즐기기 위해 셀프 인테리어에 투자하는 것 등이 올로족의 특징을 반영한다.

그렇다고 해서 '젊어서 노세'와 같은 충동적이고 소비지향적인 삶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올로족은 오늘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삶의 태도와 식견을 체득하는 것을 중시한다.

평생 직장 개념이 희미해지고 무한 경쟁이 일상화된 시대에 지금의 순간을 후회없이 즐기고, 사랑하고, 배우자는 희망적 주문이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평등한 관계를 만드는

‘더치페이’

더치페이(Dutch pay)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문화인 ‘더치 트리트(Dutch treat)’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17세기 네덜란드와 충돌이 잦았던 영국이 ‘더치’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함께 먹은 뒤 자기가 먹은 음식에 대한 비용을 각자 계산한다는 조롱의 의미로 바뀌버렸다. 오늘날 ‘더치페이’의 탄생이다.

이처럼 ‘잔돌이 같다’는 뜻의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던 더치페이가 2017년에는 오히려 합리적인 방식으로 권장되고 있다.

장기 불황의 시대, 더치페이는 함께 모이는 문화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합리적 대안으로 주목 받는다.

또한 지난해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사회 전반의 더치페이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양이를 닮아가는 사람들, 자발적 혼자 하기

고양이는 개보다 독립적이고 혼자 지내는 데 익숙한 동물로 알려져 있다. 그간 반려동물 시장의 대세가 개였다면, 최근에는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고양이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독립적인 삶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혼밥(혼자 밥 먹기)’, ‘혼술(혼자 술 마시기)’ 등 혼자인 삶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것이 새로운 사회 현상으로 자리잡았다.

사실 1인 가구의 증가는 꽤 오래 전부터 진행돼 왔다. 하지만 최근 젊은이들은 단순히 혼자 사는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혼자 노는 방법을 개발하고 즐기며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혼자도 책임지기 힘들어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는 N포세대의 서글픈 그늘이라고 이를 분석하기도 한다.

2017년에는 ‘혼자족’의 증가로 1인 가구를 위한 소포장 음식을 비롯해, 이들을 타겟으로 한 다양한 매장 및 마케팅이 증가할 전망이다.



적게 갖는 즐거움, 버려야 산다!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냉정하고 의리 없어 보이기도 하는 이 말은 사실 정리의 황금률이다. ‘버림’은 언뜻 ‘무소유’를 추구하는 삶으로 보이기 쉽지만,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는 최적의 구실이 되기도 한다.

2017년에는 새로운 물건을 사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버리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유의 개념이 변화하면서 자동차, 집과 같은 전통적인 소유물에 대한 강박이 줄고, 옷이나 가구, 스마트폰과 같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물건을 소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높아진다. 이마저도 비싼 것보다는 빨리 쓰고 쉽게 버릴 수 있는 물건을 구매해 다시 사는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더 나아가 물질적 소비 대신 정신과 가치를 구매하는 소비자도 많아지고 있다. 일상을 떠나서만 얻을 수 있는 경험의 가치를 중시해, 다른 소비를 절제하고 여행을 떠나는데 많은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한다.



현대중공업

합작 조선소 건설, 사우디 국가 사업 됐다!



합작 조선소 조감도

국토의 90%가 사막으로 이루어진 사우디아라비아 곳곳이 국가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들쭉이 있다. 지난 몇 년간 저유가가 계속되며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에 한계를 느낀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Salman bin Abdulaziz Al Saud)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제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비전 2030'을 선포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Aramco), 국영 해운사 바리(Bahri)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합작조선소 조성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살만 국왕은 합작조선소 예정 부지인 라스 알 헤어(Ras Al-Khair) 지역을 방문해 왕족 및 사우디 정부 주요 인사와 사업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King Salman 조선 산업단지 선포 행사'(Royal Inauguration Ceremony of King Salman Global Maritime Industries Complex)를 가졌다.

이는 살만 국왕 이름을 딴 첫 국가적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내의 큰 관심을 받았다. 살만 국왕은 직접 부지를 둘러보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 최길선 회장과 정기선 전무 등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 후에는 관계사들과 만나 합작조선소 설립과 관련된 상호

협력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기도 했다.

정기선 전무는 이 자리에서 "사우디 살만 국왕의 이름을 딴 첫 국가적 사업에 현대중공업그룹이 참여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40년 전 현대그룹이 사우디 국가적 사업으로 킹 파드(King Fahd) 국왕의 이름을 딴 주베일항만공사(King Fahd Seaport)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그룹 성장은 물론 사우디 산업발전에 기여한 것을 본보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랜 전부터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파트너 관계다.

40년 전인 1976년 당시 세계 최대 규모였던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공사를 현대중공업이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이 인연을 이어 2021년까지 이 지역에 상선과 해양 플랜트 건조는 물론 선박 수리까지 가능한 약 150만평 규모의 조선소를 건립하고, 선박 건조 기술과 조선소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발전에 또 한 번 기여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역시 중동지역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조선소 운영 참여를 통해 다양한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킹 살만 조선단지'의 성공적인 건설을 기대한다.

‘노사 한마음’으로 선박 수주 나섰다



▲ LNG병커링선 조감도

앞줄 우측부터 현대미포조선 강원식 노조위원장, 현대중공업 그룹 박승용 선박영업부부장, 솔테사 크리스티앙 브로이엘(Mr. Christian Breuel) 탱커용선부문 사장

국내 조선업계가 수주절벽과 노사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현대미포조선 노사가 일감 확보를 위한 수주활동에 힘을 모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미포조선은 지난해 11월말 독일 버나드슐테(Bernhard Schulte, 이하 ‘솔테’)사로부터 7천500입방미터(m³)급 LNG병커링선(Bunkering) 1척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LNG병커링선은 LNG연료추진선에 LNG를 공급하는 선박으로, 이번 계약에는 1척의 옵션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

이 수주가 더욱 의미를 갖는 것은 수주계약식에 현대중공업그룹 선박영업부부장 박승용 전무와 함께 나타난 현대미포조선 강원식 노조위원장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노조 소식지를 통해 “노사가 합심해 일감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하며, 노동조합도 모든 힘을 보탬 것”이라고 밝힌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이 실제로 회사와 수주활동을 함께 하며 이를 실천에 옮긴 것이다.

계약식 자리에서 강원식 노조위원장은 “우리 회사에 선박을 발주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안정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과 정확한 납기를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솔테사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조선 시황이 침체된 상황에

서 단합된 노사관계를 보며 현대미포조선에 대해 큰 신뢰를 갖게 됐다”며,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이번 수주 성공은 현대미포조선의 안정된 노사관계와 더불어 고연바·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력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미포조선 관계자는 “유례없는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영 효율화 노력과 함께 안정적인 노사관계 유지도 매우 중요하다”며, “향후에도 노사가 합심해 추가 수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 노사도 일감 확보를 위해 서로 손을 맞잡고 위기 극복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윤문균 사장과 유영창 노동조합 지회장이 공동으로 국내외 21개 선주사에 감사편지를 전달하며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았다.

이들은 감사편지를 통해 “최고의 품질과 납기 준수를 통해 고객 만족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며, “자사를 믿고 맡겨준 기회를 바탕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되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척의 배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설계부터 시작해 강재절단,
조립, 의장, 도장 등 수많은 공정을 거치게 된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과정이 없겠지만,
선박의 형태를 완성시키는 건조(建造)는 선박 공정의 ‘꽃’이라 불릴 만큼 핵심 공정이다.
용접 불꽃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한겨울 추위를 녹이고 있는
현대미포조선 건조1부 건조1팀을 만나 보았다.

불꽃 남자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추위야 물렸거라!”

뜨거운 열정으로
근무하고 있는 건조1팀 사우들은
서로를 위한 마음 또한
따뜻하다



선박이 건조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34명의 팀원들로 구성된 건조1부 건조1팀은 현대미포조선 생산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다.

이들은 현대미포조선 4개의 도크 어디에서든 만나볼 수 있다. 선박이 있는 곳은 모두 이들의 작업장이 되기 때문이다.

건조1팀은 선박의 다양한 부위 중에서도 선수(船首), 선미(船尾) 등 곡면 부분에 대한 취부 및 용접, 사상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작업을 하는 공간이 주로 밀폐된 공간이고, 곡선면에 대한 용접은 직선 용접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고도의 기량을 요구한다.

10명의 취부사와 23명의 용접사 그리고 사상 작업을 담당하는 1명의 사수로 구성된 이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찰떡 호흡을 발휘하며 고품질의 선박 건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용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취부사가 용접면을 맞추면, 용접사가 투입돼 다양한 모양의 블록을 접합하고, 이후 사상작업을 담당하는 사수가 용접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순서로 작업이 진행된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모범 팀'

건조1팀은 2004년 7월 이후 1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단 한 건의 재해도 일어나지 않은 모범 안전팀이다. 이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는 이미 고객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안전뿐 아니라 품질 역시 고객들의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어, 일부 감독관들은 건조1팀의 작업 구역은 검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현대미포조선 제일의 모범적인 팀으로, 회사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건조팀은 올해도 무사고 365일 달성, 100% 민고 책임질 수 있는 품질 확보, 소통과 화합의 조직 문화를 슬로건으로 소중한 전통을 이어간다는 각오다.

서로를 위한 마음 한가득

건조팀이 다방면에서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팀장인 조국진 기장(54세)을 필두로 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바탕이 됐다.

조국진 기장은 특히 타지에서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직원들을 살뜰히 챙긴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집으로 초대해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고민이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듣고 해결해주는 등 소통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미안하고 부담스러운 마음에 어려워하던 팀원들도 조국진 기장의 진심을 느낀 뒤로는 그가 부를 때마다 즉각 응하며 우정을 다지고 있다.

“진심으로 팀원들을 위하고 이끌어주는 선배와 함께 하니 애사심도 더욱 높아지고, 업무도 열심히 하게 된다”고 건조팀원들은 입을 모은다.

건조팀에는 조국진 기장 외에도 팀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직원들이 많다.

장철화 사수(42세)는 팀의 공식 사진사다. 현대미포조선 사진 동호회 ‘포커스’ 활동을 오래 해온 그는 프로작가 못지않은 실력으로 팀 야유회나 회식, 결혼식 등 각종 행사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물론, 예쁜 액자를 만들어 선물하기도 한다.

정의진 사수(39세)는 15년이 넘게 팀 사무실 청소를 책임지는 ‘깔끔맨’이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일 쓰레기통을 비우고, 분리수거와 바닥청소까지 깔끔히 해놓는다.

용접과 배관 기능장을 갖고 있는 김상국 사수(41세)는 자타가 공인하는 ‘자기계발 왕’이다. 요즘은 바쁜 하루를 쪼개 울산과학대학교에서 기계공학 관련 공부를 하고 있을 정도로 배움에 대한 열의가 남다르다. 김상국 사수는 이렇게 배운 지식을 “혼자만 알면 아깝다”며 팀원들과 공유하는 데도 앞장선다.

조국진 팀장은 “내가 조금 더 하면 모든 팀원이 편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동료들 먼저 챙기는 문화를 조성해 회사 발전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따뜻한 문화가 우리 그룹 전체로 퍼져나가 서로 화합하며 발전하는 2017년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적절한 투자와 효율적인 운영 ‘최고의 자산 관리자’

현대중공업 자산운영부는 과거 총무부 관재과에서 수행하던 시설 투자 및 관리 업무를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자산관리부문 산하에 신설된 부서다. 회사의 생산 활동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산과 지원에 관련된 자산을 조성하고, 최적의 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이들의 미션이다.



자산운영부는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투자가 결정된 부동산 자산에 대한 법적 규제, 비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형태의 개발 방법을 도출해내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이미 개발하고 있거나 보유 중인 부동산 자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개발, 항만 매립 등 생산 부지를 조성하거나, 사무실과 공장, 안벽 등의 시설을 확충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의 전용(轉用), 임대, 매각, 재개발 등의 자산 관리를 맡고 있다.

최근에는 사업 확장에 따른 부지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련 기관과 협상을 진행해, 2야드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특수선 건조를 위해 안벽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시설을 임대해 생산 활동을 적기에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크게 절감했다.

자산운영부는 사외 복지시설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사원아파트의 개발분양과 율전재 등 최신키숙사의 신축을 진행해 임직원들의 주거 편의를 높이고, 명덕호수공원을 비롯해 현대예술관과 한마음회관 등 복지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임직원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했다.



자산운영부는 부동산 개발·운영과 관련된 각종 법률과 규제를 준수하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련 법규 및 사례 연구, 행정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각 부서의 요구에 부응하는 최적의 자산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업에서 자산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해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운영부는 현장에서 생산 활동에 임하느라 고생하는 사우 여러분이 있기에 존재하는 부서입니다. 비록 주인공이 아닌 조연일지라도, 현대중공업의 자산 담당자라는 큰 자부심을 갖고 생산능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겠습니다.

◀ 부서장 김상호 부장



이외에도 삼전관 철골주차장, 해양 오토바이 주차장, 울산대교 교하부지 주차장 등 사외 주차장 확보를 통해 임직원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자산운영부는 회사의 위기극복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해에는 자산 매각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고 자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가치가 낮은 불용(不用) 자산을 다양한 개발사업과 접목시켜 고부가가치 자산으로 탈바꿈하는 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또한 스마트팩토리 구축과 신개념 첨단 공장 건설 등을 통해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개성만점' 자산운영부 가족



새해엔 가면을 벗자!

이재영 사우(자산운영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가면을 쓰고 마음을 숨긴 채 묵묵히 살아갑니다. '훌륭한 배우는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연극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해에는 가끔씩 가면을 벗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자산관리 전문가'로의 첫 발

정태근 차장(자산운영과)

저는 지난해 말 '자산관리 전문가'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처음 시작하는 업무가 생소하기도 하지만, 학구적이고 열정적인 부서원들과 함께 노력한다면 자산관리 전문가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자산운영부에서의 앞날이 더욱 기대됩니다!



서른 살이 되기 전 지구 반대편으로

이영현 사우(자산개발과)

서른 살이 되기 직전, 지금 가지 않으면 앞으로는 영영 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지구 반대편 남아메리카에 다녀왔습니다. 말이 안 통해서 찢쩍 매고 고산병에 시달리면서도, 안데스 산맥이 품고 있는 마추픽추의 신비로움과 이구아수폭포의 장엄함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만 5일을 보내는 험난한 일정이었지만, 평생 잊을 수 없는 짜릿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타이밍과 기다림

한진우 과장(자산개발과)

저의 취미는 요리입니다.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타이밍에 필요한 양념을 넣는 것과 음식에 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입니다. 타이밍을 알고 의연하게 기다리는 자세는 비단 요리를 할 때만 중요한 건 아닐 것입니다. 근무할 때도 이를 명심하고 생활하면 좋은 인연과 즐거운 일들이 가득할 거라 기대합니다.



일탈을 넘어 도약의 기회로

평성욱 과장(자산개발과)

제 삶의 활력소 두 가지는 '사랑하는 가족'과 '소소한 일탈'입니다. 일탈을 위한 리스트에는 스낵스쿠버 자격증 따기, 4대강 자전거 종주, 스카이다이빙 도전, 드론 레이싱 참가 등의 항목이 올라 있습니다.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많지만, 일탈을 꿈꾸고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울산에서 만난 아이들은 내 인생의 보물”

울산 동구 서부동 외국인사택 내에 위치한 클럽하우스,
평소에는 조용하고 아늑한 이곳이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떠들썩해진다.

현대중공업에 상주하는 외국인 선주·선급 감독관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만든 봉사단체인
고아원후원회(Orphanage Committee)가 주최하는 크리스마스 파티 덕분이다.

올해로 27년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서,
고아원후원회를 이끌고 있는 바이올렛 우 씨(Violet Wu/대만)를 만났다.



아이들과 함께 '사랑의 크리스마스'

울산양육원 소속 아이들 80명의 설레는 발걸음이 올해도 클럽하우스를 향했다. 크리스마스를 2주 앞둔,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주말이었다.

후원회 회원들은 직접 준비한 음식을 아이들에게 대접했고, 깜짝 마술쇼와 림보, 장애물 뛰어넘기 등 신나는 레크리에이션으로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다. 산타클로스로 변장한 회원들이 선물을 들고 나타나자 아이들의 입에서는 일제히 함성이 터졌다.

아이들도 미리 준비한 깜찍한 노래와 율동으로 고아원후원회 회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바이올렛 씨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일 년 새 많이 자란 모습을 보니 대견하고 기쁘다”고 말했다.





10여년째 한결같은 나눔

올해로 벌써 8년째 이 행사를 이끌고 있는 바이올렛 씨는 2008년부터 고아원후원회의 회장을 맡아왔다. 역대 회장 중 가장 오랜 기간이다.

바이올렛 씨는 덴마크 머스크(Maersk)사의 감독관인 남편 헨닝 야콥슨 씨(Henning Jacobsen)를 따라 2005년 처음 울산에 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 소외계층 아이들을 돕는데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울산에 오자마자 자연스럽게 고아원후원회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한다. 그 세월이 어느덧 10여년이 흘렀다.

바이올렛 씨는 매년 봄이면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를 떠나고, 겨울이면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어 행복한 추억을 나눴다.

자신의 작은 노력으로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잠시도 나눔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한다.

이야기를 이어가던 중 그녀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카드 꾸러미를 꺼내 보여줬다. 알록달록 정성이 담긴 크리스마스카드에는 아이들의 서툰 글씨로 바이올렛 씨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바이올렛 씨는 “아이들과 함께 한 시간 동안 그들에게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다”며, “이 카드들이 고아원후원회 활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결정적 이유”라고 말했다.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매년 1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위한 파티를 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바이올렛 씨는 “후원회 운영에 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다”며, “주변의 도움 없이는 낯선 외국에서 자선 활동을 이어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 사람에게 공을 돌렸지만, 사실 바이올렛 씨는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지역 사회와 나눔을 실천해 왔다.

고아원후원회 활동 외에도 매년 현대중공업이 개최하는 사랑의 기증품 판매전, 김장담그기 등에 참여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영어교육 봉사, 성금 모금 등에도 적극 나서왔다.

바이올렛 씨는 현대중공업 외국인사택의 최장기 거주민이기도 하다. 거제 등 다른 도시로 거처를

옮길 기회가 있었음에도 12년간 울산을 고집하는 남다른 애정을 보여왔다.

울산을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이 여기저기 전해지며 2010년에는 울산명예시민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바이올렛 씨는 남편의 프로젝트가 끝나 올 상반기 대만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거기에 수주가 감소하면서 외국인사택 주민이 줄어, 고아원후원회도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떠나는 바이올렛 씨의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다.

“고아원후원회의 봉사 범위를 더 넓히고 싶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는 바이올렛 씨는, “남편이 다시 현대중공업에서 프로젝트를 맡아 울산으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겠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사보 '현대중공업 가족'에서는 평소 말하지 못했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작은 선물과 함께 배달하는 '사보가 전해드립니다' 코너를 연재합니다. 동료, 가족, 친구에게 전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 사우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한겨울 추위 녹인 '특별한 선물'

서툴고 쑥스러워서, 혹은 그럴 시간과 기회가 없어 미처 전하지 못했던 '고맙다'는 말.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사보편집실이 나섰다.

기숙사들을 위한 우렁각시 "감사합니다"

현대미포조선 400여명의 기숙사인들이 생활하는 미래관에는 남모르게 사우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우렁각시가 있다.

모두가 출근해 업무에 매진하고 있을 한낮, 조용한 기숙사에서 우렁각시들의 활약이 시작된다. 기숙사 곳곳을 청소하고, 망가진 시설물은 없나 꼼꼼한 점검에 들어간다.

4인 가족의 집안일만 해도 끝이 없는데, 매일 400여명의 기숙사들을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이 많은 숨은 영웅들을 위해 미래관 자치운영위원회 회장 길경완 사우(44세, 건조1부)와 서일상 사우(44세,

총무부)가 사보편집실로 사연을 신청해 왔다.

"기숙사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밤낮 없이 노력하시는 관리인과 미화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는 것이었다.

12월 15일, 400여 기숙사인을 대표해 길경완, 서일상 사우가 기숙사 관리인 이완기(53세), 이종철(63세)씨와 미화원 김금순(60세), 최인순(62세), 조정숙(53세) 씨를 위한 감사 선물을 준비해 기숙사를 찾았다.

미래관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이완기 사우는 "기숙인 모두가 동



생 같고 자식 같이 느껴져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알아준 기숙인들에게 오히려 고맙다"고 말했다. 뜻밖의 선물을 받아든 미화원들도 "선물까지 받았으니 앞으로 더 깨끗한 기숙사를 만들기 위해 힘써야겠다"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항상 쾌적한 기숙 환경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이들은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하는 사우들의 인사를 받으면 더욱 신나게 일하게 된다고 한다.

오늘 퇴근길, 기숙사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들에게 진심어린 마음을 담아 인사를 건네 보는 건 어떨까? 고마움을 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안전한 작업장 앞장 "업어주고 싶을 정도로 고마워"

현대미포조선의 감사 인사릴레이는 다음날에도 계속됐다. 오후 휴식시간, 노란 안전모와 조끼를 착용한 현대E&T 소속 안전요원들이 (주)한영선박(현대미포조선 선행도장부 소속)의 사무실을 찾았다.

통닭과 음료수를 손에 가득 들고 들어선 이들의 모습에 휴식을 취하던 사우들이 환호했다.

현대E&T 안전요원들은 "투철한 안전의식으로 안전한 작업장 만들기에 앞장서온 한영선박 사우들에게 꼭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

하고 싶어 사보에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영선박은 사우들 개개인이 몸에 배인 안전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 문제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사람에게 자체적으로 보상하는 '안전보상제'를 실시하며 자신과 동료들의 안전을 앞장서서 챙기고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은 미리 안전요원과 협의해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그야말로 완벽한 안전작업을 추구하고 있다.

안전요원 입장에서는 정말 업어주고 싶을 정도로 고마울 수밖에 없다.

안전한 작업장을 위한 한영선박 사우들의 노력과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안전요원들의 따뜻한 마음씨가 만들어낸 훈훈하고 정겨운 광경이 한겨울 추위마저도 수그러들게 만들었다.

새해에는 현대중공업그룹 모든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작지만 의미 있는 감동들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감사함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훈훈하고 따뜻한 현장을
블로그 hihi에서 영상으로 만나 보세요!



'아빠의 도전'은 현대중공업그룹 가족들의 다양한 도전기를 엿보는 코너입니다.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도전 과제를 일주일 동안 수행한 후기를 매달 소개합니다.



딸과 함께 한 물 2리터

마시기 도전!

“좋은 피부의 비결은
매일 물을 2리터 이상 마시는 거예요.”
피부 미인으로 유명한 여배우들의 단골 멘트다.
적당량의 물을 마시는 습관은
피부 문제뿐만 아니라 변비, 노화,
소화 기능, 비만, 혈액 순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해결해 준다.
프로 씨름 선수였던 현대삼호중공업
노사협력부 이준우 사원(37세)이
전성기 때의 체력을 되찾고자
하루에 물 2리터 마시기 도전에 나섰다.

1일차

“자네, 화장실에 왜 이렇게 자주 가나?”

도전 첫 날, 2리터짜리 페트병을 보고
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먹는 것 하나는 자신 있는 사람인데,
겨우 이 정도 마시는 게 ‘도전’이 맞나
싶었죠.

사보담당자 앞에서 호기롭게 벌컥벌
컥 마셔 보였습니다. 처음엔 배부른
느낌이 조금 불편했는데, 조금 지나니 속도 울렁거리는 것 같더군
요. 찬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신 것이 탈이었나 봅니다.
물 많이 마시기의 부작용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이죠. 한 시간 전에 다녀왔는데, 또 화장실행이네요.
결국 2리터를 전부 비우지는 못하고 0.2리터 정도 남기고 말았습
니다.



2일차

적응기! 제대로 마시는 법을 터득하다

첫날의 시행착오를 통해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제대로 알고 섭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사무실에서도 집에서도 작은 컵을 늘
곁에 두고, 생각날 때마다 물을 마셨
습니다.

이틀의 실천만으로는 특별한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남
은 기간 동안 꾸준히 실천하며 천천히 지켜봐야겠습니다.



3일차

기분 좋은 아침 맞이

귀여운 딸이 아빠의 도전을 돕겠다며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도와주려나 지켜보고 있었는데, 페트병을 통째로 들더니 입에 물을 부어주더군요. 다소 과격한 도움이었지만 덕분에 물맛이 꿀맛 같았습니다.

운동하던 시절에는 매일 새벽 운동을 하는 등 규칙적이고 활동적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사무실 생활을 하고 전에 없던 고민이 생겼는데, 배변활동이 더딘 것입니다.

아침에 막 일어나서 빈속에 찬물을 한 잔 마시는 것이 변비에 좋다는 말을 듣고, 아침에 물 마시는 것은 잊지 않고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아침을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4일차

드디어 효과가?

나흘이 되니 슬슬 몸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 기상이 개운해졌고, 피부 결도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연말이라 술자리가 잦아 망가졌던 몸이 다시 기지개 파는 듯 했달까요. 처음엔 벅차게 느껴졌던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도 습관이 됐는지 거뜬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피로 회복 효과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면 세포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해 에너지 대사가 느려지면서 피로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시는 저에겐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죠.



5일차

딸과 함께 러브샷!

제 도전의 일등공신은 아홉 살 딸입니다. 물마시기를 게을리 하고 있을 때면 물병과 컵을 들고 제게 다가오죠. 지금은 너무 배부르다고 딸에게 투정부렸더니, 같이 마시자고 컵을 하나 더 들고 오네요.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는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슬럼프를 겪을 뻔 했으나, 딸 덕분에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러브샷이죠.



6일차

카페인 섭취했을 때는 '2.5리터 마시기'



이날은 커피와 녹차를 많이 마셔서 평소보다 0.5리터를 더 마셨습니다. 음료에 포함된 카페인도 이뇨 작용을 촉진해서 더 많은 수분 보충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루 종일 마셔대기만 했더니, 순간적으로 배가 더 나온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주변 동료들도 저를 따라 물 2리터 마시기에 돌입했습니다. 제가 물 마시기의 효과를 열심히 홍보한 덕분이겠죠? 특히 여직원들은 다이어트,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아 더 열심입니다. 참고로 하루 섭취 적정량은 카와 몸무게를 더한 것을 100으로 나눈 만큼이라고 하네요.

7일차

도전은 끝났지만 끝난 것이 아니다!

먹는 것엔 자신 있다며 호언장담했다가 그 말을 주워 담고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습관화하고 나니 어려운 도전이 아니더군요. 적당량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그 효과는 매우 컸다는 것을 사우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자도 피곤함을 느끼고, 자주 चेहरा가나 배변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화장품을 많이 발라도 피부가 건조할 때 저처럼 물 2리터 마시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부와 몸의 변화를 느끼고 나면 마시지 말라고 해도 마시게 될 것입니다.

물은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비타민을 챙겨 먹듯 적정량의 물을 매일 챙겨 마십시오!

산업기계 전문 회사로 자립 고부가 시장 공략 본격화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1979년부터 산업용 펌프를 양산하기 시작했으며, 1995년 박용펌프를 시작으로 공기압축기, 가스압축기 등 고부가 펌프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다. 그리고 지난해 4월 현대중공업터보기계(주)(대표이사: 정종호)가 현대중공업에서 분리돼 독립 회사로 출범하면서, 산업용 펌프 산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산업용 펌프 생산 3천대 달성 눈앞

현대중공업터보기계(이하 현대터보기계)는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내에서 총 6천600여평(2만2천여㎡) 규모의 산업기계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직원 수는 130여명이다.

이들의 주력 제품은 '산업용 펌프'다. 주로 발전터빈에 복수(復水)나 냉각수 등을 공급하는 장치로, 지난해 현대터보기계 전체 매출의 70%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현대중공업은 사업 초기 일본 기업과의 기술 제휴를 통해 산업용 펌프의 생산을 시작했다. 이후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1993년 국내 최초로 화력발전소용 보일러 급수펌프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했으며, 원전 급수펌프, 수직 가변익(可變翼) 펌프 등의 독자 모델을 출시하며 기술력을 높여 왔다.

또한 유체해석과 진동저감 연구를 통해 2013년부터 지금까지 20여종의 고효율-저소음 펌프를 개발했다. 최근에는 전산유체역학(CFD) 기술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구조 설계를 이뤄내, 가격 경쟁력도 한층 높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밑거름이 되어, 현대터보기계는 올해 5월 산업용 펌프 생산 누계 3천대 돌파를 앞두고 있다.

김용균 차장(45세)은 “우리 산업용 펌프는 미국, 독일 등 선진기업과 비교해도 고장률이 낮고 내구성도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최근에는 그동안 진입장벽이 높았던 정유시설과 담수플랜트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꾸준한 기술개발로 고부가 펌프 시장 확대

원유운반선용 펌프는 현대터보기계가 뒤늦게 뛰어든 사업이지만, 현재 20% 이상의 시장점유율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품이다. 1995년 첫 제품을 생산한지 12년 만인 지난 2007년에는 산업통상

자원부가 인정하는 '세계일류상품'로 등재되기도 했다.

지난 2014년부터는 자체 기술로 개발한 PC선용 박용펌프인 '하이웰(Hi-well)' 펌프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는 정유제품운반선과 FPSO(부유식 생산-저장-하역설비)에서 석유화학제품을 출하하역하는데 사용되는 잠수형 펌프로서 고도의 설계 기술과 안전 제어시스템 등 높은 기술력을 요구한다.

기존에는 노르웨이를 비롯한 해외기업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지만, 현대터보기계가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2013년부터는 자체적인 기술을 이용한 공기압축기 생산을 시작했으며, 2015년에는 가스압축시스템에 대한 제어기술을 개발하는 등 고부가 펌프시장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독립회사 출범 후 만성 적자 개선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2015년 산업기계부문에서 약 2천100억원의 매출(사외 기준)을 기록하며, 10년 새 4배 이상의 성장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과도한 간접비로 인한 만성적인 적자도 있었다.

특히 해외 경쟁사들이 신흥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하며 제품의 시장 가격을 낮추고 있어, 원가 절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현대터보기계는 지난해 4월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이후,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특히 사업의 특성에 맞는 구매 전략과 적극적인 설계 개선을 통해 20% 이상의 원가를 절감해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

지난해 7월에는 기존보다 1.4배 이상 성능이 개선된 '수직펌프 시운전 설비'를 확충하는 등 작업장에 대한 설비 투자와 치공구 보강 등이 활발해져, 공정 효율도 크게 향상됐다.

또한 지난해 말까지 국제표준기구의 품질경영시스템(ISO9001)과 KEPIC(국제 전력산업기술기준) 인증심사도 끝마쳐 올해부터는 독자적인 영업활동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현대터보기계는 지난해 약 20억원(추정치)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만성 적자를 탈피했다.

여기에 무무르지 않고 발전플랜트 시장에 집중되어 있던 사업을 고부가 사업으로 확대하고, 아시아와 중남미 등 신흥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경쟁력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글로벌 산업기계 전문회사로 입지를 굳히고 있는 현대중공업터보기계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본다.



‘현대중공업 가족’에서는 이달부터 현대중공업그룹과 인연이 깊은 국가들을 소개하는 ‘세계를 가다’ 코너를 연재합니다.
사보와 함께 즐거운 세계 여행을 떠나 보세요!

쪽빛 지중해를 바라보며 신화 속을 거닐다

아름다운 지중해 섬들의 고향, 신화의 나라, 수업시간마다 우리를 괴롭힌 피타고라스와 유클리드 수학의 발상지.
발칸반도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나라 그리스는 서양 문명의 뿌리이자, 세계적인 휴양지이다.
해운 산업 강국으로 현대중공업과의 인연 또한 깊은 나라, 그리스로 떠나 보자.

현대중공업의 시작 가능케 한 ‘나보다 더 미친 사람’

지난해 6월, 그리스 선 엔터프라이즈(Sun Enterprise LTD.)사의 조지 리바노스
(George Livanos, 82세) 회장이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방문했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15만9천톤급 원유운반선 2척의 명명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리바노스 회장은 1971년, 유조선 설계도면과 백사장 사진, 축척 5만분의 1 지도만
가지고 자신을 찾아온 정주영 창업자에게 유조선 2척을 발주하며 오늘날 현대중공



업이 세계 최대 조선소로서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도와준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정주영 창업자는 자서전 '이 땅에 태어나서'에서 도면만 가지고 배를 사줄 선주를 찾아다니던 자기 자신보다, 아무 것도 없는 자신을 믿고 배를 사준 리바노스 회장을 '더 미친 사람'이라고 묘사하며 그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첫 선박을 발주한 인연을 바탕으로 현대중공업과 그리스 해운사들은 그 후로 40여년간 끈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마란가스(MARAN GAS), 메트로스타(Metrostar), 테나마리스(Tenamaris) 등 그리스 국적의 다양한 선주사와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수행해 왔다.

지금까지 현대중공업그룹이 건조한 그리스 선박은 현대중공업 306척, 현대미포조선 129척, 현대삼호중공업 169척 등 총 604척에 달한다.

신화 속에서 지중해를 품다

그리스는 불가리아, 터키와 국경을 접하고, 지중해의 일부인 에게 해와 이오니아 해에 둘러싸여 있다.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로 해상 운송은 전통적으로 그리스 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아 왔다.

그리스의 해운업은 19세기 흑해와 북유럽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선박을 매입하며 본격화됐다. 그 후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세계 최대의 유조선단 및 벌크선단을 움직이는 국가로 발전했다.

그리스는 수도 아테네를 중심으로 델포이, 메테오라 등 오랜 문화를 간직한 도시들이 유명하다. 특히 광고와 드라마 촬영지로 익숙한 산토리니, 자킨토스 등 1천400여개의 섬들은 휴양지나 신혼여행지로도 각광받고 있다. 수도 아테네 곳곳에서는 그리스 신화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크로폴리스에서는 파르테논 신전, 에레크테이온 신전 등 고대 그리스의 영광을 만날 수 있으며, 상점과 음식점이 모여 있는 구 도심 플라카 지구에서는 색다른 활기를 느낄 수 있다.

아테네 서북쪽에 위치한 '델포이'는 신들의 왕 '제우스'가 선택한 세상의 중심으로 알려져 있다. 인류가 건설한 최고의 극장이라 불리는 '델포이 극장'과 델포이 제전이 열린 '델포이 경기장'은 고대 그리스의 융성한 문화를 한 눈에 보여준다.

광고 촬영지로 친숙한 '산토리니'는 에게 해의 찬란한 빛에 씻긴 섬이다. 눈부신 흰색 집들은 하늘을 닮은 파란 지붕을 얹은 채 지중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인기 드라마 속 촬영지로 유명해진 이오니아 해의 '자킨토스 섬'도 아름다운 풍경과 로맨틱한 분위기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그리스에서 보내온 이야기



눈부신 나라 그리스에서 일하는 건 어떤 기분일까? 살아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현대중공업 아테네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진위 과장(40세)에게 들어봤다.

독특하다고 느낀 그리스만의 문화가 있나요?

그리스의 국교는 '그리스 정교회'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요일에는 교회를 갑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일요일에는 일반 상점들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주로 일요일을 활용해 장을 보거나 쇼핑에 나서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요즘처럼 그리스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소비 진작을 위해 일요일에도 상점 문을 여는 것이 생산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실제로 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일반 근로자들의 반대가 심해 무산됐다고 합니다.

문화 차이로 인해 곤란했던 경험이 있나요?

주로 12~1시, 6~7시 사이에 점심과 저녁을 먹는 한국과 달리, 그리스는 점심을 2시경, 저녁을 9~10시경에 먹습니다.

한 번은 본사 출장팀과 선주사측의 면담을 주선했던 적이 있는데, 선주측에서 면담 시간을 12시로 제안해 당연히 점심식사 후 함께 하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면담 당일, 선주사 측에 어느 식당으로 가면 되겠느냐고 묻자, 식사를 같이 할 생각이 없었던 선주측에서 매우 난처했던 경험이 기억납니다.

또 한 번은 선주 협회에서 개최한 행사가 밤 10시 반까지 진행된 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식사를 하는 바람에 힘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스 여행을 계획하는 사우들에게 특별한 장소나 음식을 추천해주세요!

그리스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으로 '기로스 랍(Gyros Rap)'을 추천합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긴 막대기에 꽂아 돌리면서 익힌 뒤, 토마토, 양파 등과 함께 누타빵에 넣어 먹는 음식입니다. 외국 생활을 오래 한 그리스인 친구가 고향에서 가장 먼저 찾는 음식일 만큼 이 지역의 전통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중해 해변가는 그리스인들의 문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겨울(12~2월)을 제외하고 그리스인들은 바닷가에서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스에 와 보시면 우리나라와 달리 대화가 근처에도 들릴만한 것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젊은 사람들 대부분이 해변가로 나가 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에 오셔서 현지인이 된 기분을 느끼고 싶다면, 책 한 권 들고 해변가에 앉아 있거나 해변 카페에 자리를 잡고 다양한 사람들을 구경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해의 희망 가득 담은 힘찬 새출발

10~40년전 각 사의 사보에 실린 기사를 통해 회사와 사우들,
지역사회의 옛 모습을 돌아보는 '그때 그 시절'.
이달에는 1977년, 1987년, 1997년, 2007년 1월호 사보를 돌아본다.

2007.1



▲ 현대중공업 야드를 배경으로 방영된 2007년 1월 1일 SBS 8시 뉴스

2007년 1월 현대중공업 사보에는 새해 첫 시작을 알리는 SBS 8시 뉴스가 현대중공업 영빈관 전망대에서 진행됐다는 소식이 실렸다.

사실 공중과 방송이 특정 기업에서 새해 메인 뉴스를 진행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당시 세계 1위 조선업체로 한국 경제의 불을 밝히던 현대중공업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역동의 모습을 전달하기 가장 적합한 기업으로 인식돼, 여러 방송사에서 러브콜을 받았다.

이달 현대미포조선은 사보를 통해 노르웨이 선급협회인 DNV사의 2007년판 달력에 현대미포조선이 건조한 PC선이 실렸다는 소식을 전했다.



▲ DNV사 달력에 게재된 미포탱커

당시 DNV는 품질 검사에 참여한 전 세계 350여척의 선박 중 품질과 디자인이 우수한

선박 12척을 선정해 달력에 실었는데,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한 선박이 2006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DNV 달력에 게재돼 화제를 모았다.

현대삼호중공업은 2007년 1월, 16만톤급 유조선을 선주사인 터키 게덴(GEDEN)사에 인도하며 2천만DWT의 선박 건조 기록을 세웠다.

이는 1999년 출범 이후 7년 2개월 만으로, 조선업계 역사상 최단 기간에 세운 기록이었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은 그로부터 10년 뒤인 지난해 1월 선박 건조 6천만DWT를 달성했다.



▲ 현대삼호중공업은 2007년 1월 터키 게덴사에 16만톤급 유조선을 인도함으로써 선박 건조 누계 2천만DWT를 달성했다.

1997.1



▲ 현대중공업 1997년 1월 사보

1997년 1월호 현대중공업 사보에는 정축년(丁丑年) 새해를 맞아 각 사업본부별 새해 계획을 비롯해, 해외지사에서 온 새해 인사 등이 실렸다. 특히 1996년은 경기 침체와 수주 불황으로 힘든 시기였던 만큼, 내실경영으로 경쟁력을 높여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

련하지는 다짐이 주 내용을 이뤘다.

이달 현대중공업 사보에는 현대자동차 앞 해안도로가 개통돼 동구에서 울산 시내로의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됐다는 소식이 실리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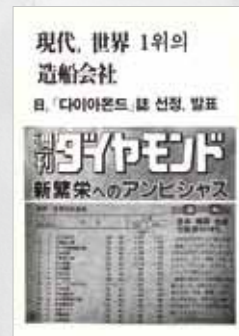
총 4.8킬로미터, 왕복 6차선 규모의 이 도로는 2001년 6월 정주영 창업자의 호를 따 '아산로(峨山路)'로 이름 붙여졌으며, 지금도 하루 평균 4만여대가 통과하는 울산의 대표 도로로 자리하고 있다.

현대미포조선은 1997년 1월 생산관리 전산화를 위해 생산기술직 팀장급들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회사 전체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사무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과정으로, 53명이 참석해 문서 작성법 및 전산 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을 학습했다.



▲ 현대미포조선 생산기술직 팀장 대상 전산교육



▲ 일본 '다이아몬드'지가 발표한 세계 50대 기업 순위



▲ 자쿠이(JACUI)호 선수 신환 작업 모습



▲ 현대중공업 1977년 1월호 사보

1987.1

1987년 1월 현대중공업은 일본의 경제주간지인 '다이아몬드'誌가 발표한 '업종별 세계 50대 기업' 순위에서 조선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현대중공업이 조선 1위 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이때가 1983년 이후 두 번째였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223만7천톤(G/T)을 건조해 우리나라 전체 건조량이 326만톤의 70%가량을 건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위와 3위는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과 IHI가 각각 선정됐으며, 국내 동종사인 대우조선(9위)과 삼성중공업(38위)도 5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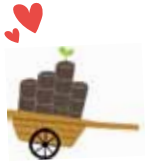
1987년 1월 당시 수리조선소였던 현대미포조선은 해난사고로 선수가 부서진 브라질 국적의 원유 및 철광석 운반선 '자쿠이(JACUI)'호의 선수(Bulbous Bow) 신환 작업을 진행했다.

1977.1

현대중공업 1977년 1월호 사보에는 '가정탐방'이라는 코너가 실려 눈길을 끈다. 당시 사보편집실에서는 철구사업부(現 해양플랜트사업본부)에서 근무하던 백 준 직장의 가정방문을 소개했다.

일제강점기 김해에서 태어난 백 직장은 3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를 따라 일본 도쿄로 건너갔다가, "못 살아도 내 나라에서 살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으로 건너왔다고 한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잘 반영하고 있는 사우였다.

크레인 제작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담당하던 그는 "직원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애사심으로 업무에 임하기를 당부하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푸른 생각으로 희망을 꽃피우는 아름다운 靑年

작년 한 해 1천만원 후원

'청사도회'는 2015년도 상반기 현대중공업에 입사한 생산기술직 특채 사우들이 모여, 그해 11월 결성한 봉사단체다.

푸른 생각이 길이다라는 뜻의 '청사도(靑思道)'로 모임 이름을 정한 이들은 자신들만의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다.

숨털이 송송한 얼굴에 동키 몇몇은 군대 '짬밥'을 먹고 있다며 익살스레 웃는 미소가 여느 스무 살 청년들과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봉사에 대한 굳은 각오와 소신을 말하는 눈빛은 누구보다 성숙하고 진지했다.

차가운 바람에 옷깃을 여미는 손이 바쁜 요즘, 온정을 나누기 위한 봉사단체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사내의 다양한 봉사모임 가운데 젊음을 무기로 소통과 봉사에 앞장서는 청사도회가 눈길을 끌고 있다.





청사도회는 창단 이듬해인 작년 한 해 동안 이웃들을 위해 무려 1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사용했다. 참여해온 활동의 면면을 들여다 보면 이 약관(弱冠)의 젊은이들이 더욱 대견해진다.

청사도회의 첫 번째 봉사는 지난해 1월 새해의 시작과 함께 한 연탄배달이었다. 회비로 모은 첫 성금을 어디에 사용할까 고민 하던 이들은 2016년을 기념하는 연탄 2016장을 구매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집에 직접 배달했다.

어찌나 열심히 연탄을 날랐던지, 연탄으로 새까매진 얼굴이 땀으로 지워질 정도였다고 한다.

10월에는 울산의 한 무료 급식소를 찾아 지역 어르신들의 식사를 거들고, 쌀 100포대와 생필품을 기부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거나, 어린이 집을 찾아 청소기와 화장지 등의 물품을 후원하고, 청소와 빨래를 돕는 등 한 해 동안 활발한 나눔을 펼쳐왔다.

배풀고, 소통하고, 상상하는 사람으로

현재 청사도회는 회장 하길한 사우(22세, 해양선장설계부)를 비롯해 27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회원들이 한 달에 3만원씩 회비를 모아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모임을 운영한다.

회원들 중 절반 정도인 14명은 국방 의무를 지고 있는데, 군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 이들도 군대에서 받은 월급 중 3만원을 꼬박 꼬박 회비로 납부하고 있다.

이동병의 월급이 매달 15만원 정도라고 하니, 적은 돈이 아닐 텐데도 모두 군말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봉사의 자리에는 함께 할 수 없지만 작은 정성이라도 보태고자 하는 마음이 예쁘다.

박상윤 사우(22세, 특수선생선부)는 “군대에 있는 회원들이 힘들게 모아 보내주는 회비가 우리 청사도회의 성격을 잘 말해주는 것 같다”며, “봉사의 참된 의미는 작은 것을 나누는 것이라는 생각을

회원들 모두가 공유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사도회는 매달 회의를 통해 봉사활동 계획을 세운다. 모인 회비의 양에 따라 봉사 대상을 선정하고, 가장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날짜와 방법 등을 정한다. 모든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 계획을 세우는 자리는 늘 시끌벅적하다.

윤재선 사우(22세, NASR GTP 공사부)는 “매번 모임 때마다 하얀 종이가 빼곡해질 때까지 봉사 계획을 세운다”며, “봉사는 무언가를 나누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봉사가 우리를 베풀고, 소통하고, 상상하게 한다”고 말했다.

청사도회는 올해 새로운 형태의 봉사활동을 계획 중이다. 젊음이 가진 기동성을 무기 삼아 고아원과 기술학교 등을 찾아 강연을 펼치며 재능기부를 실천해 보기로 했다.

일찍부터 자신만의 기술을 갈고닦아 남들보다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한 만큼 자신들의 경험이 후배들에게 큰 울림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봉사의 행복과 나눔의 가치를 배우며 건강한 청년들로 성장하고 있는 청사도회 사우들. 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정성과 사랑이 우리 그룹과 지역 사회에 따뜻한 희망을 꽃피우고 있다.



빙판 지치며 협동심과 사회성 ‘쑥쑥’!



헬멧과 장갑 등 보호 장구로 무장한 선수들이 아이스링크로 하나 둘 들어온다. 바깥의 날씨는 영하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온몸을 던져 수업에 열중하는 아이들의 이마에는 어느새 송골송골 땀이 맺힌다.

울산과학대학교 아산체육관 아이스링크에서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저녁 아이스하키 강좌가 열리고 있다.

아이스링크를 찾아간 날은 초등부 아이스하키팀인 ‘돌핀스’ 선수들의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배운지 1년이 넘는 최고참부터 한 달이 채 안된 막내까지 발장게 상기된 얼굴로 빙판 위를 누비고 있었다. 미끄러운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것만으로도 대단해 보이는데, 한 손에는 스틱을 들고 경기장 여기저기를 움직이는 펍(경기에 사용되는 공)에서 눈을 떼지 않는 모습이 사뭇 진지하다. 헛손질을 하고 넘어져도 뭐가 그리 재밌는지 하하 호호 웃음꽃이 멈추질 않는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코치 유병승 씨는 전직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으로, 전국의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적 있는 실력자다. 그는 “아이스하키는 혼자가 아닌 친구들과 함께 하는 운동으로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며, “체력 증진은 물론, 학업에 지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이 될 수 있

도록 즐거운 수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돌핀스’는 올해 열리는 소년체전을 목표로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목표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대회 출전을 계획하고는 있지만, 사실 아이스하키를 통해 몸도 마음도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다.

강의는 유치부와 초등부, 그리고 성인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유치부와 초등부는 수금토요일에, 성인부는 화목요일에 수업이 열린다.

아이들의 겨울방학을 맞아 1월 한 달 동안은 특강이 진행된다. 수시 신청도 가능하다. 스케이트는 아이스링크장에서 대여할 수 있고, 안전모 등 기본 장비는 무료로 제공하니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겨울방학을 이용해 아이들에게 활동적이고 이색적인 겨울 스포츠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부모나, 무료한 일상 속 특별한 취미를 갖고 싶은 사우들이 있다면 울산과학대학교 아이스하키 강좌의 문을 두드려 보자. 아이스하키를 즐기기에 겨울은 그야말로 최고의 계절이다.

취재 김하연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수강 문의 유병승 코치(☎010-7444-5516)

온몸으로 배우니 울산의 역사 '쑹쑹'!



울산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예약 신청 관람일 30~3일 전

울산박물관 홈페이지(<http://museum.ulsan.go.kr>) 및 안내데스크

문의 울산박물관 ☎052-222-8501~3

긴 겨울방학이 시작됐다. 집에만 있기는 답답한데, 추운 날씨 때문에 야외활동이 망설여지는 아이들에게 울산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울산박물관 1층에 위치한 어린이박물관이 지난해 11월 새 단장을 마치고, 아이들을 위한 눈높이 역사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현재 어린이박물관에서는 '대왕암에서 만난 동해 용과 떠나는 역사탐험'이라는 주제로 7개의 여의주를 찾아 잠든 동해의 용을 깨우는 미션이 진행되고 있다.

'바다에서', '마을에서', '달천철장에서', '읍성에서', '도시에서' 등 총 5개의 소주제 아래 25개의 아키자기한 체험코너가 마련돼 있다.

체험은 먼저 '바다에서' 시작된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대왕암의 용과 만나 체험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영상이 끝나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 본격적인 체험을 시작한다.

미끄럼틀 밖의 세상은 매우 분주하다. 아이들은 하나의 체험이라도 놓칠세라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고, 체험을 안내해주는 부모들은 귀여운 아이들의 모습에 까르르 웃음을 터뜨린다.

가장 인기 있는 코너는 손에 묻지 않는 모래점토를 이용해 도구를 만드는 코너와, 친구들과 직접 경주를 할 수 있는 '고래가 되어 바다를 헤엄쳐 보다' 코너다.

엄마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체험도 많다. 지푸라기로 새끼를 꼬는 '마두희 줄을 만들어 보아요' 코너는 아이와 부모가 머리를 맞대야 할 수 있다. 일종의 줄다리기인 '당겨라! 마두희'도 부모님의 힘이 필요하다.

전기자동차의 원리를 이해해 보는 '전기자동차 충전소와 톱니의 역할을 알아보는 톱니를 맞추면 자동차가 움직여요' 등 다양한 활동에서 부모의 역할에 따라 아이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체험의 의미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체험장 곳곳에서 안내원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수칙을 잘 지켜 안전하게 체험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부모의 몫이다.

어린이박물관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체험활동에 참여 하길 원한다면 관람일 3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당일 20명까지 선착순으로 현장예약을 받기도 한다.

좀 더 알차게 어린이박물관을 이용하고 싶다면 안내원들의 도움을 요청해도 좋다.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며 더욱 재밌게 체험을 즐기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취재 이승희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찢어진 눈, 대왕 코, 삐죽거리는 입

못난이의 미학

영산강 자전거 도로변을 따라 가다 만난 못난이 동산.
전남 무안군 일로를 청호리의 한적한 시골 마을 길가에
눈에 띄는 하얀 전시관이 야외 동산과 어우러져 있다.
이곳은 '못난이'들의 작은 마을이다.

못난이들이 모여 만든 큰 세계

둥근 연못이 있는 잔디밭에서 두 팔을 활짝 펴고 나를 꼭 안아줄 것만 같은 못난이 브론즈 상이 우리를 먼저 반겨준다.

못났지만 정감 있는 생김새에 웃음을 한 번 지어보이고, 하얀 전시관 겸 카페로 들어가 스스로 '못난이 아빠'라 부르는 조각가 김판삼 씨(45세)를 만났다.

사방으로 난 기다란 유리창을 통해 전시관 안으로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그 은은한 햇빛을 조명 삼아 못난이 조각들 하나하나가 주인공이 된다.

주저앉은 코, 찢어진 눈에 불룩 튀어나온 뽕뽕한 볼과 삐죽 내민 얇은 입술은 이름 그대로 '못난 생김새'다. 이 작은 못난이들이 모여 하나의 큰 세계를 만들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못난이의 주제는 미학(美學)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아니지만, 못난이 인형에는 김판삼 씨가 생각하는 나름의 미(美)가 담겨 있다.





조각가 김판삼 씨



못난이의 모델은 우리 시대 '어머니'

조각가 김판삼 씨가 2011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나의 시리즈로 작업 중인 못난이는 '어머니'를 테마로 하고 있다.

'자식들을 위해 겉모습의 아름다움을 포기한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 꾸미지 않아도 아름답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옛날에는 이곳이 모두 바닷가였어요. 어릴적 어머니는 생선을 잡아 고무 다라이 하나 가득 머리에 이고 아주 먼 거리를 걸어 생선을 팔러 다니셨어요. 늦은 밤까지 졸린 눈을 비비며 어머니를 기다리곤 했는데, 사실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가 생선을 팔아 사요시는 단팥빵이나 보름달빵을 기다린 거였어요."

행여 엄마가 너무 멀리 가 돌아오시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운 마음보다 달달한 빵 하나의 두근거림이 더 컸던 어린 아들도 이제 아빠가 되었다. 달콤한 빵을 자식들에게 가져다주기 위해 엄마는 얼마나 다리가 부르토도록 걸었을까, 그러면서도 자식 입에 달콤한 빵 한 조각을 넣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이다.

가족에 대한 그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엄마 등에 업힌 아이의 모습인 '회상'과 장사나간 엄마를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엄마의 뒤통무니를 졸졸 따르는 '행복한 귀기'등 작품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아이와 함께 해 행복한 모성애는 아이를 옆구리에 낀 채 머리에는 물을 감고 한 손에는 계란을 올린 프라이팬을, 한 손에는 전화기를 들고 출근 준비를 하는 '엄마는 슈퍼맨'이란 작품으로 형상화했다.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을 먹여 학교를 보내고 자신도 출근을 하려면 고단할 법도 하지만 얼굴에는 여유마저 느껴진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전시관

그는 못난이를 통해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현실을 풍자적으로 꼬집기도 한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배우로 평가받는 마를린 먼로도 그의 손을 거치면 '마를린 먼놈'이 되고, 미국을 상징하는 자유의 여신상은 몸매에 아주 '자유로운 여신'이 된다. 그리스 신화에서 사랑과 미의 여신인 비너스는 명품 브랜드를 온 몸에 휘감은 '비너스의 탄생'이 되어 현대인의 허황된 삶을 비꼰다.

김판삼 씨는 못난이를 보는 관객들이 "그냥 웃었으면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 "작품을 보면서 서로 마주보고 웃으며 위안과 용기를 얻고 돌아간다면 정말 행복한 것 같다"고 덧붙인다.

못난이 동산과 못난이 전시관은 못난이를 사랑하는 일반인들의 참여로 만들어졌다. 건물은 한 건축가의 재능기부로 지어졌고 전시관 안의 작은 카페도 기증받은 물품들로 꾸며졌다.

못난이 동산의 커다란 기린과 브론즈 상도 자신을 닮은 못난이를 세우고 싶다는 '예쁜 못난이'가 재료비를 후원해주어 설치됐다.

작가가 만들어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전시관과 카페이기에 책정된 관람료는 없다. 편안하게 들어와 작품을 감상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신 후 후원함에 자유롭게 지불한 뒤 돌아가면 된다.

못난이가 주는 친근하고 푸근한 모습을 보고 있으니 어쩐지 행복한 기분이 든다.

최재 주경미 현대삼호중공업 주부리포터



찾아가는 길 전남 무안군 일로읍 상사바위길 125 (청호리288-43)
개관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미운 사위가 오면 매생이국을 준다’는 옛말이 있다.
매생이 고유의 점질 때문에 팔팔 끓여도 끓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후루룩 마시다가 허를 데이는 일이 많아서다.
특유의 풍미와 풍부한 영양으로 없어서 못 먹는 겨울 보양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매생이는
이제 미운 사위보다 이쁜 사위의 밥상에 오르는 음식이 됐다.

청정 무공해
귀한 별미

매생이



칼로리는 낮고, 영양은 풍부

매생이는 '생생한 이끼를 바로 뜯는다(맨다)'는 이름을 가진 녹조류로, 파래와 비슷하지만 부드럽고 감칠맛이 난다. 전남 장흥과 강진, 완도, 고흥 등 물 맑은 청정해역에서만 자라는 남도지방의 특산물이다. 11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가 제철로, 냉동하지 않는 이상 겨울철에만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이다.

조선시대 자산어보(鱗山魚譜)에서는 매생이를 누에가 만든 비단 실보다 가늘고, 쇠털보다 촘촘하며, 김푸른 빛깔을 띠고 있다고 묘사하며 '국을 끓이면 연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그 맛은 매우 달고 향기롭다'고 소개했다.

김양식장에서 천대 받던 매생이가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 영양식으로 알려지면서부터다.

흔히들 철분과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 우유를 떠올리는데, 매생이의 철분 함량은 우유의 40배이고, 칼슘도 우유의 5배에 달한다. 또한 엽록소와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주면서도 소화와 흡수가 빨라 산모의 산후조리 음식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피부를 맑게 하고 위나 장의 점막을 강화하기 때문에 여성과 노인에게도 좋다.

우리 주변의 패스트푸드에 영양소는 없고 칼로리만 높은 '엠프티 칼로리 푸드(Empty calories food)'라면 매생이는 정반대다. 칼로리는 낮고 영양소가 풍부하다.

달고 향기로운, 매력적인 풍미

파래, 감태와 달리 매생이는 국으로만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매생이국국이다. 들어가는 재료는 많지 않지만 혀를 부드럽게 자극하는 바다의 향기와 고소한 맛, 뜨겁지만 시원하다는 말을 연발하게 만드는 풍미는 가히 일품이다.

특히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보다 3배나 많기 때문에 속풀이 해장 국으로도 그만이다. 매생이탕에 굴을 넣으면 씹히는 식감도 좋고,

영양적인 조화도 잘 어울려진다.

매생이탕의 매생이는 너무 부드러워 손가락으로 잘 떠지지 않고 흘러내리기 일쑤다. 때문에 젓가락의 도움을 받거나 조금 식혀서 얼굴을 콧 박은 채 후루룩 마셔야 한다.

매생이탕에 찬밥을 넣으면 매생이죽이 되고, 밀가루 반죽을 떼어 넣으면 매생이수제비, 떡을 넣으면 매생이떡국이 된다.

양식이 활성화되기 전에 전남 지역민들은 귀한 매생이를 설날에만 맛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 맛 좋은 떡국이 지금은 전국적으로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다.

매생이는 식용유와도 궁합이 좋다. 전이나 부침으로 섭취하면 매생이에 부족한 지질을 보충할 수 있다.

싱그러운 초록빛깔의 매생이표고굴전의 매생이는 뒤섞인 반죽과 함께 부드럽게 넘어가고 표고와 굴은 알맞은 식감을 자랑한다. 매생이와 굴, 표고까지, 들어가는 재료 하나하나가 특유의 향을 갖고 있지만, 신기하게도 조화롭다.

매생이탕은 '사진빨'이 좋은 편은 아니다. 색도 검은데다가 보글보글 끓지도 않으니 말이다. 인증샷이 아쉽다면 입맛 다시는 고통을 잠시 견디며 매생이표고굴전을 찍으면 된다. 그만큼 보는 재미가 훌륭하다.

매생이를 제대로 맛보기 위해서는 전남 장흥에 들르길 추천한다. 한우, 표고버섯, 굴 등 매생이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을 함께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추운 겨울 차가운 공기에 시달리다가 맛보는 따뜻한 매생이국이 얼마나 포근한지 모른다. 송년회, 신년회로 지친 속을 부드러운 매생이로 달래보는 것이 어떨까.



매생이 요리 맛집

울산 '굴촌풍경채'

찾아가는 길 울산 중구 성안동 513-1

연락처 ☎052-245-9111

가격 매생이국국밥 7천500원, 매생이전 1만원

장흥 '명희네음식점'

찾아가는 길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토요시장 2길 3-6

연락처 ☎061-862-3369

가격 매생이탕매생이떡국 7천원, 매생이표고굴전 1만원



‘돈 만드는 곳’ 그 베일을 벗다

첫돌을 맞는 아기가 잡는 돌잡이 돈에서부터 죽은 사람이 저승에 주고 간다는 노잣돈까지!
인생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인 돈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돈은 어디서,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한국조폐공사에서 그 해답을 찾아봤다.



매주 목요일 1회 개방, 보안 철저히 지켜야

한국조폐공사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지폐와 주화뿐만 아니라 여권, 각종 신분증 및 유가증권, 우표, 훈장, 기념패, 상품권 등 650여종에 달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공기업이다.

경상북도 경산에 위치한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는 실제 돈을 생산하는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지폐와 주화를 비롯해 훈장, 기념 메달, 기념패 등을 생산한다. 돈은 한국은행의 발주를 받아 생산되며, 인가를 거쳐 비로소 통화로서의 가치를 발휘한다.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는 청와대, 국회, 대법원, 원자력발전소 등과 함께 보안 '가급'에 속하는 주요 국가산업시설이다. 늘 베일에 감춰져 있던 이곳이 지난해 11월부터 일반인들에게도 개방되고 있다. 매주 목요일 1회, 10명 이상 단체 관람객에 한해 관람 예약을 받는다.

주요 보안시설이라 그런지 '화폐본부'라고 검색하면 내비게이션에 뜨지 않는다. 일일이 주소를 찍어 도착한 화폐본부에는 어쩐지 예상치 못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외부인의 출입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날인만큼, 직원들에게도 무척 긴장되는 날이라고 했다.

정문에서 신원조회를 거쳐 출입증을 받은 후, 담당자의 안내를 따라 비로소 화폐본부 안으로 들어갔다.

첫 번째 건물에서 다시 보안검색을 받았다. 건물 전체가 탈의실인 곳으로, 직원들은 출근을 하자마자 이곳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화폐 제조에 들어간다고 한다. 한국조폐공사를 소개하는 홍보 영상과 화폐 제조 공정을 설명하는 영상을 시청하고, 인쇄전시관으로 이동했다.

담당자의 설명은 인쇄전시관에서도 이어졌다. 화폐의 변천사와 제조 공정에 대한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이 무척 재미있다.

고종 30년에 만들어진 한국 최초의 지폐 원판 '호조태환권(戶曹兌換券)'부터 화폐 속의 인물이 선정되는 과정, 단 25일만 유통되다가 짧은 생을 마감한 비운의 지폐 이야기 등이 흥미를 유발한다.

'5억 들어보기' 등 잊지 못할 경험

드디어 관람객들이 가장 기다리는 은행권 제조 공정을 둘러보는 시간이다. 은행권 전용시설에서는 지폐의 평판(平版)인쇄부터 포장까지, 전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에는 독자적인 기술로 제조한 종이와 잉크가 사용된다고 한다. 이 종이는 8번의 인쇄를 거친 뒤 위조지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 보안 장치가 삽입되는데 총 45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쉽게 사용하는 지폐 한 장이 이처럼 오랜 인고의 시간을 거쳐 탄생한다고 하니, 새삼 돈의 가치를 생각해 보게 됐다.

지폐의 제조 과정을 본 다음에는 주화체험관과 주화전시관이 이어진다. 우리나라 최초의 주화부터 엽전까지 주화의 제조 과정에 대해 볼 수 있는 곳이다. 주화의 주재료가 동(銅)이기 때문에 '동전'이라고 불린다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5만원 지폐로 이뤄진 5억원의 돈뭉치를 들어보고, 골드바를 직접 만져보는 이색체험도 이어졌다. 잠시나마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다.

장인의 솜씨가 묻어나는 훈장 제조 공정까지 보고난 뒤 견학은 마무리됐다. 매 공정마다 엿보이는 우리나라의 제조 기술력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 시간이었다.

취재 당일 함께 관람한 팀은 화폐본부 인근에서 온 어르신들이었다. 농한기를 맞이해 지역의 자랑거리인 화폐본부를 보러 왔다는 박삼보 할아버지(73세, 경북 경산시)는 "이렇게 와서 돈 구경을 실컷 하니 좋다"며 "자식과 손자손녀들에게도 구경하러 오라고 추천해야겠다"며 관람 소감을 밝혔다.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는 국가보안시설이기에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담당자의 안내를 따라 이동해야 하고, 정해진 장소를 이탈해선 안 되며, 사진촬영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겨울방학을 맞은 자녀들과 함께 돈의 가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화폐본부를 찾아볼 것을 추천한다.

취재 최선자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주소 경북 경산시 화랑로 140-10

문의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053-819-2754

견학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2시 중 1회만 운영
(공휴일 견학 불가,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견학 가능)

견학 신청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http://www.komsco.com>)

견학 순서

출입 - 공사 소개 - 인쇄전시관 - 은행권제조공정 - 이동 - 주화체험관 - 주화전시관 - 주화제조공정 (총 2시간 소요)

심포가 있는 흥겨운 먹거리 마당

맛있는 음식과 흥겨운 음악, 그리고 그것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 멋진 잔치를 이루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다.
이 중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 울산에 생겼다. 연일 시끌벅적 불야성을 이루는 이곳을 찾아 미리 맛보았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3박자의 조화

울산 중구 성남동 큰애기야시장이 지난해 11월 문을 열었다. 성남동 젊음의 거리와 이어져 있는 중앙전통시장부터 태화강변 공영주차장까지 아끼자기하게 꾸며진 푸드트럭과 매대가 길게 줄지어 있다.

울산 유일의 상설 야시장인 이곳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 운영되고 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가 내는 삼박자가 멋지게 조화를 이루며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개장한 뒤 한 달 동안 무려 78만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큰 인기라고 한다.

푸드트럭에서 판매하는 각양각색의 음식을 맛보는 것도 재미있지

만,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구경하는 것 또한 신기한 볼거리가 된다. 상인들은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방문객들의 입과 코뿐 아니라 눈길까지 사로잡는다.

간이무대에서는 버스킹 공연과 퍼포먼스, 이벤트들이 흥을 돋운다. 지역 문화예술단체들과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이 흥겨운 마당은, 평일에는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주말에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열리고 있다.

개성 가득 3구간 즐기기

큰애기 야시장은 크게 3개 구간으로 나뉜다.



1구간은 젊은 층을 겨냥한 다양한 주전부리를 파는 곳으로, 중앙 전통시장 사주문 입구에서 뉴코아아울렛 상남점까지 170미터 구간이다.

큐브스테이크와 오징어문어꼬치, 소고기 불초밥, 야채삼겹돌들이, 모짜렐라 치즈라면, 핫도그 등 총 21개의 먹거리가 치명적인 냄새를 풍기며 방문객들을 유혹한다.

늘어진 줄을 감당하기 어려워 번호표까지 나눠주는 이색 풍경도 펼쳐진다. 평일에도 최소 40분은 기다려야 핫도그를 손에 쥘 수 있다고 하니 그 인기를 짐작해 볼만 하다.

2구간은 가벼운 식사를 하기 좋은 곳으로, 보세거리 입구에서 중앙시장 오거리까지 110미터 구간이다. 해물볶음짬뽕과 하와이안 쉬림프, 스페인 전통음식 빠야야 등 16개의 판매대에서 특색 있는 메뉴들을 판매한다.

이 구간에는 쉼터도 마련돼 있어 지친 몸을 잠시 쉬거나, 간식을 먹고 가기도 좋다.

3구간은 그 옛날 포장마차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곳으로, 중앙시장 오거리부터 농협 옥교동지점까지 110미터 구간이다.



이 구간은 원래 포장마차가 삼삼오오 들어서 있었던 곳인데, 큰애기야시장이 들어서며 기존의 포장마차들을 정비해 쾌적한 환경에서 떡볶이, 어묵, 순대 등 간식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어릴 적 느꼈던 길거리 음식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며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길거리에서 맛보는 '셰프'들의 요리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이라고 가볍게 보는 것은 금물이다. 먹는 순간 느껴지는 묵직한 맛이 요리사들의 깊은 내공을 짐작케 한다.

그도 그럴 것이 큰애기야시장에 입점한 매대와 푸드트럭들은 엄격한 서류심사와 품평회를 거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점한 가게들이라고 한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인 이유다.

2구간에서 큐브스테이크를 판매하고 있는 김연수 셰프는 “싱가포르에서 6년 동안 요리학교를 다녔고 식당을 운영한 경험도 있다”며, “장소는 푸드트럭이지만 음식의 질만큼은 어느 식당 못지않다고 자부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세련된 맛은 부족하지만 넘치도록 덤을 주는 그 맛이 그리워 멀리 부산, 대구, 서울을 찾던 울산 시민들에게 큰애기야시장의 탄생은 더없이 반갑다.

삶이 고단하고 재미없다고 느껴질 때 큰애기야시장을 찾아보자.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삶의 하모니와 잠들어 있던 미각을 깨우는 색다른 맛이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테니.

취재 이정은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큰애기야시장

운영 시간 매주 화요일~일요일(월요일 휴무)

저녁 7시 ~ 다음날 새벽 1시

텔레비전만이 유일한 벗 외로운 노부부의 삶

계절은 겨울의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낙엽을 밟으며 가을을 지냈고, 그 전에는 장맛비를 맞으며 여름을 보냈다.
하지만 찾는 이도 없고 거동도 불편해 집 안에서 멍하니 누워 지내는
노부부에게 계절의 변화와 세상의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질병으로 고통 받는 노부부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다. 거동이 불편해 잘 움직이지 못하고 휴대전화도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혹시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됐다.

발걸음을 돌려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누구세요?” 하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문을 열어주는 김금춘 할머니(74세)를 따라 들어간 어둡고 좁은 방 한쪽에 공부경 할아버지(81세)가 누워 있었다.

할아버지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찾아온 손님을 맞았다.

“어서오이소, 근디 월요일에 온다하지 않았는교?”

“할아버지, 오늘이 월요일이에요.”

특별한 일과도 찾는 이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흘러보내고 있는 할아버지는 날짜나 요일을 잊은 지 오래라고 했다.

얼마 전 위암 수술을 받은 할아버지는 고령으로 몸이 쇠약해진데다, 최근에는 이유를 알 수 없이 발등이 심하게 부어올라 걷는 것조차 쉽지 않다.

유일하게 외출을 하는 때는 병원에 가는 날뿐이다. 아픈 발 때문에 양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겨우겨우 걸음을 옮긴다고 한다. 정확한 병명도, 치료 방법도 찾지 못한 채 진통제만 먹고 있으니 그저 답답할 따름이다.

할머니 역시 건강이 좋지 않다. 오래 전 자궁암 수술을 받은 할머니는 고혈압과 당뇨, 치매 등으로 약을 복용 중이다. 거기다 젊은 시절 갖은 농사일에 시달렸던 탓에 관절염과 허리 통증이 심각해 편하게 앉을 수도, 설 수도 없다.

가난과 외로움으로

고단한 노년

남해가 고향인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바다에 나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다. 별이에 따라 부산으로, 속초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울산에 직장을 잡은 아들을 따라 할머니와 함께 울산 동구에 터를 잡은 것이 10여년 전이다.

환갑을 바라보고 있는 아들은 사업에 실패한 후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다. 제 한몫 챙기기도 힘든 형편이라 경제적인 지원을 바라기는 어렵다.

노부부는 기초생활수급비와 한 달에 한 번씩 주민센터에서 지원해주는 쌀, 생필품 등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어 그나마 주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다행이지만, 매달 나가는 약값과 병원비가 많아 생계를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보잘 것 없는 단출한 살림살이를 보니, 마치 고장난 채 버려진 시계처럼 노부부의 시간도 멈춰있는 듯 보였다.

몸도 불편하고 지인도 없어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노부부는 잘 나오지도 않는 텔레비전을 유일한 벗 삼아 외롭게 생활하고 있다. 가끔 찾아오는 구청 복지사와 주민센터 직원만이 이 집을 드나드는 유일한 손님이라고 했다.

노부부는 얼마 남지 않은 여생에 소원이 있다면, 아무 것도 해준 것 없는 자식에게 무거운 짐을 남기지 않고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려면 여기서 더 아프지나 말아야 할 텐데”하며 무거운 한숨을 내쉰다.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노부부의 멈춘 시계를 다시 돌아가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취재 최민경 현대중공업 주부리porter

도움 계좌 농협 856-12-028103 (예금주: 공부경)



몸도 불편하고 지인도 없어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노부부는
잘 나오지도 않는 텔레비전을
유일한 벗 삼아
외롭게 생활하고 있다.





호흡곤란과 마른기침이 계속 심하면 사망까지

‘간질성폐질환’은 어떤 병인가요?

‘간질성폐질환’은 ‘간질성폐렴’ 또는 ‘사이질(間質) 폐질환’이라고도 불립니다.

기관지의 맨 끝에는 ‘허파파리’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공기주머니들이 포도송이처럼 붙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운반해 온 적혈구가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산소를 취해 온 몸으로 운반하는 곳인데, 이 허파파리를 구성하는 조직을 ‘사이질’ 또는 ‘간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간질’에 염증이 생기고 회복되는 것이 반복되면 섬유세포가 쌓이면서 폐를 딱딱하게 만들어 호흡에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간질성폐질환입니다.

간질성폐질환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간질성폐질환은 외부에서 균이 들어와 생기는 일반적 폐렴과 다르게,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스스로를 공격해 염증을 발생시킵니다.

간질성폐질환은 크게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간질성폐질환과 원인을 알 수 있는 간질환으로 나뉩니다. 원인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석면 등의 노출에 의해 생기기도 하며, 류마티스관절염이나 루푸스, 혈관염, 근육염과 같은 결체조직질환(Connective Tissue Disease)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곰팡이나 비결핵항산균과 같은 균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균 자체가 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균이 항원(抗原) 역할을 해 우리 몸의 면역반응을 일으켜 염증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는 ‘과민성폐렴’이라고 구분해 부릅니다.

간질성폐질환에 걸리면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간질성폐질환의 증상으로 가장 흔한 것은 마른기침과 호흡곤란입니다. 발병 원인에 따라 호흡곤란이 수년 동안 서서히 진행되기도 하며, 수일 내에 급속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감기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쉽게 숨이 차고 마른 기침이 계속 생긴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간질성폐질환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간질성폐질환의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흉부 CT와 폐기능 검사, 폐조직 검사, 기관지폐포세척액 검사 등을 통해 병의 진행 상태를 진단하고, 직업력을 포함한 자세한 병력청취, 혈액검사 등을 통해 원인을 찾습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폐조직 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신마취를 하고 흉강경을 통해 시행하는 수술적 폐생검이 가장 정확하지만, 수술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 나이가 많은 환자의 경우에는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경기관지 폐생검을 시행합니다. 경기관지 폐생검은 환자의 부담은 적으나, 얻을 수 있는 조직 샘플의 양이 적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간질성폐질환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기본적 치료는 약물치료입니다. 결체조직질환에 동반된 간질성 폐렴의 경우에는 결체조직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발성 간질성폐렴의 경우는 특발성 폐섬유증을 제외하고는 주로 부신피질호르몬을 기본으로 하는 면역억제제들을 사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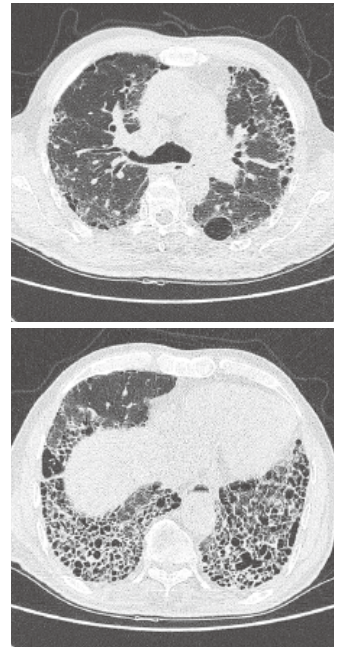
특발성 폐섬유증의 경우는 최근까지는 약이 없었으나 최근 '피레스파'라는 약이 보허인정을 받았으며 해외에서 개발된 '넌테다닙'이라는 약도 최근 우리나라 식약청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두 약 모두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 진행을 늦춰주는 정도의 효능만 있고, 부작용이 많아 치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질성폐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나요?

특발성 간질성폐렴은 원인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특발성 폐섬유증의 경우에도 흡연이 원인까지는 아니라도 위험인자가 된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 간질성폐렴 중에는 흡연이 원인인 경우도 있어 금연하는 것만으로도 병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금연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간질성폐질환 환자의 CT 사진

‘간질성폐질환’ 간질에
염증이 생기고 회복되는 것이
반복되면서 폐를 딱딱하게 만들어
호흡에 장애를 일으키는 병으로,
금연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다

‘잘 하고 있어’ 다독이며 목표 앞으로 한 걸음씩!

새해 목표를 세우다보면 ‘작심삼일’이 자주 마음에 걸린다.
목표를 제대로 세우기도 전에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머뭇거리게 된다면, 일단 작년에 세웠던 계획을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



지난 목표에 대한 반성부터

우리는 지난 목표를 점검할 때 달성한 것보다 실패한 것들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분명 잘 지켜진 것들도 많을 텐데, 달성하지 못한 것만 마음에 남아 스스로를 의지가 약한 사람으로 규정해 버린다.

물론 실패에 대해 반성하는 것도 좋지만,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은 오히려 새로운 목표를 수립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지난해 목표들 중 작은 것이라도 달성을 했다면 스스로를 충분히 격려해주는 것이 먼저다.

그 다음 잘 지키지 못한 계획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파악해 다음 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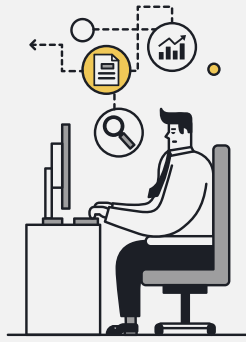
간혹 달성하지 못한 목표의 원인이 개인의 의지나 노력과 관계없는 외부 환경에 의한 경우에도 스스로를 질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무작정 자신을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계획을 면밀히 확인하고 언제가 됐든 다시 시작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작은 목표 세워야

지난 목표를 되돌아봤다면 본격적으로 새해 목표 세우기에 들어 가야 한다.

새해 목표는 대부분 장기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다. 장기적인 목표를 정할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크고, 도전적으로 세워 보는 것이 좋다. 평소 시도해 보지 못



한 것에 대한 도전은 자신의 숨어 있는 능력을 찾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작정 거창한 목표만 세워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목표는 오히려 실천의지를 빼앗아 간다.

때문에 큰 목표 밑에는 반드시 세부적인 작은 목표들이 있어야 한다. 이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로 현실적이면서 실천 가능한 항목들로 구성해야 한다.

이때 지난해 목표 달성 여부 분석을 통해 알아낸 것들이 도움이 된다. 자신이 어떤 것을 어려워하는지, 어떤 때에 목표를 잘 달성하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달성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고, 성공 여부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

작은 목표들의 성공 경험은 새로운 동기를 부여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 중요

새해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계획한 대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일이다. 그래야 옆길로 빠지지도 않고, 작은 성공에 머무르거나 포기하려는 마음도 다잡을 수 있다.

때때로 계획한 것을 원하는 것만큼 성취하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럴 때는 목표 자체를 포기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계획을 수정할 것을 권한다.

‘그럼 그렇지’, ‘이럴 줄 알았어’ 등 가혹한 말로 자신을 채찍질하기보다, ‘이만큼 한 것도 대단해’, ‘늦었지만 천천히 하면 돼라며 자신을 격려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으면서 씬 없이 앞으로 나가면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어느새 목표는 자연스레 달성되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

아무리 작은 목표라고 해도 끈기를 갖고 마지막까지 실천해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의지를 불태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스스로를 믿어주는 마음의 준비가 더 중요하다.

완벽하거나 근사한 것을 해야 한다는 환상을 버리고, 작은 것부터 혹은 내가 잘하는 것부터 일단 시작해 보자.

글 김명현 상담사(현대미포조선 마음정원)

목표 설정 하기



| 장기 목표 |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도전적 목표



| 구체적인 하위 목표 |

실천할 수 있는 단기 목표

- 이 목표는 실천가능한가?
- 이 목표는 현실적인가?
- 작고 구체적인가?
- '~하지 말자'라는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하기의 긍정적인 표현으로 목표를 정했는가?
- 목표달성 여부가 측정가능한가?
- 내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성취를 위한 시간계획표 |

매일 성취를 위한 시간계획표

- 언제, 어느 시간을 활용할 것인가?
-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시간 계획을 적용하고 있는가?



| 중간점검 |

- 단기 목표는 잘 성취하고 있는가?
- 단기 목표는 장기 목표의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가?
- 목표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 보상은 적절한가?





현대글로벌서비스(주) 출범

현대글로벌서비스(주)가 12월 13일 부산 해운대구 센텀사이언스파크빌딩에서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과 안광현 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 서병수 부산시장, 고객사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강환구 사장은 축사를 통해 “현대중공업은 조선해양 시장의 침체 속에서 신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대글로벌서비스가 서비스와 ICT의 융합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교두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조선, 엔진기계,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의 선박해양 서비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190여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오는 2020년까지 전 세계 선박해양 서비스 시장에서 정상급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ICT 조선해양 융합 선포식

‘K-ICT(정보통신기술) 조선해양 융합 선포식’이 12월 6일 현대중공업 본관에서 강환구 사장과 주원호 중앙기술원장,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김기현 울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고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사들이 참여하는 이 사업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 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내년 3월까지 1차적으로 중소 ICT 기업들과 △내업 공정 표준 시뮬레이터, △빅데이터 기반 제품수명관리(PLM) 설계 표준 플랫폼 등 4개 과제를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화 시장 진출

현대중공업이 12월 8일 서울사무소에서 주영길 전진시스템 사업대표와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에너지공단과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이하 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BEMS는 각종 에너지 공급·이용기기에 정보통신기술(CT)을 융합함으로써 설비 자동제어, 원격 점검, 조영 제어 등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전진시스템사업본부는 자체 개발한 에너지관리시스템 솔루션을 바탕으로 BEMS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으로, 우선 내년 1월까지 씨마크 호텔에 BEMS를 구축하고 이후 다른 업무용 건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엔진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시연

현대중공업이 최근 ‘저압용 질소산화물 저감장치(LP SCR)’를 개발하고, 12월 16일 대형엔진조립공장에서 국내 8개 조선소와 7개 선급 등 5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검증 시연회’를 가졌다. 이날 현대중공업은 1만600마력급 대형엔진에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장착하고, 성공적으로 성능 점검을 마쳤다.

출력 10만9천 마력급까지의 대형엔진에 장착할 수 있는 이 저감장치는 저압(1bar) 상태의 엔진 배기가스에서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을 90% 이상 제거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2년 중형엔진용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를 개발한데 이어, 2015년에는 4만5천마력급 이하의 대형엔진에 장착되는 고압용 저감장치도 개발한 바 있다.



컨테이너선 등 선박 6척 수주

현대중공업이 12월 9일 서울사무소에서 정기선 그룹선박해양영업본부 부문장과 이란 이리슬(IRSL)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이리슬사와 1만 4천500TEU급 컨테이너선 4척(현대미포조선 6척 별도)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올해 1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린 후 이란이 첫 발주한 선박으로, 현대중공업은 이들 선박을 오는 2018년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인도할 계획이다.

또 현대중공업은 최근 방위사업청과 해양경비안전본부로부터 각각 3천톤급 잠수함 1척과 3천톤급 경비함 1척을 수주하기도 했다.



26년째 사랑의 김장담그기

현대중공업이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12월 7일 동구 현대광장에서 '제 26회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강환구 사장과 한영석 현대미포조선 사장을 비롯해 현대주부대학 총동창회, 현충현미어머니회, 직무서클연합회, 여사원회 등에서 35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다. 김장 비용은 지난달 초 사내 체육관에서 열린 '사랑의 기증품 판매전'의 수익금으로 마련했으며, 이날 봉사자들이 정성껏 담은 1만 포기의 김치는 동구 지역 무료급식소와, 경로당, 장애인 재활시설 등 60여개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 1천300여세대에 전달됐다.



신임 임원 '기술 교육'

현대중공업은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그룹 신임 임원 30여명(현대중공업 18명)을 대상으로 '2017년 신임 임원 연수'를 진행했다.

신임 임원들은 교육 첫날 기술교육원에서 용접, 가스 절단 등을 실습하며 현장 생산 기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화재, 감전, 추락 등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해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감을 높였다.

이어 △변화의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 △장기 경영 전략 등의 강좌를 듣고, 자신의 담당 분야에 적용할 혁신 방안을 수립했으며, 지난 1년간 우리 회사의 주요 공사사례를 분석해 경쟁력 회복을 위한 대책 방안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사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품질 개선활동을 장려하고 우수 개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전사 품질분임조 경진대회'가 12월 1일 본관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각 사업본부에서 선발된 8개 분임조가 참가해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품질 개선 사례들을 발표했으며, 대회 전 실시한 현장실사 결과와 종합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소켓 노즐 홀 가공 개선 방안'을 발표해 대상을 받은 의장생산부 '오투기분임조'에게는 대표이사 상장과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으며, 내년 8월 개최되는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졌다.



HM-POPS 혁신과제 실적 발표

현대미포조선이 최근 한우리회관 대강당에서 하반기 HM-POPS 혁신활동 실적 발표회를 개최했다.

한영석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각 부서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한 해 각 부문에서 추진한 과제 중 탁월한 개선효과를 보인 6건에 대한 현장 적용 실적이 발표됐다.

한영석 사장은 총평을 통해 “장기적인 조선경기 불황을 극복해 나가는 길은 원가 절감 등을 통해 내부 경쟁력을 높이는 길밖에 없으므로 이 같은 혁신활동이 더욱 더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속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천원의 사랑 나눔’ 기금 전달

현대미포조선은 12월 20일 오전 본관 접견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에 ‘천원의 사랑 나눔’ 성금 2천500여만원을 전달했다. 현대미포조선은 지난해 3월부터 매달 희망자에 한해 월급 중 1천원을 소외된 계층을 위한 기금으로 모으는 ‘천원의 사랑 나눔’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따뜻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시황 불황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도 임직원 3천400여명 중 80%에 해당하는 2천748명이 모금 운동에 동참해 ‘이웃 사랑’ 실천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주니어마스터보드 연구과제 발표

현대미포조선이 12월 20일 본관 4층 회의실에서 주니어보드-마스터보드 연구과제 발표회를 가졌다.

한영석 사장을 비롯해 연구과제 관련부서 임원 및 부서장, 지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주니어보드(15기)와 마스터보드(13기)는 올 한 해 동안 수행한 개선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현대미포조선은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 인재를 발탁, 핵심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핵심인재 육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과제연구 활동을 수행하면서 문제 해결안 도출은 물론 리더십 개발 및 기업문화 선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 53회 무역의날 수출유공자 영예

현대미포조선 윤상원 기장과 윤창준 상무가 12월 14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 53회 무역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무총리표창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윤상원 기장은 탁월한 관리 능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선박 품질관리 및 공정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창준 상무는 19년간 선박 설계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으로 선주사가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선박을 설계함으로써 현대미포조선이 중형선박건조 세계 1위 회사로의 위상을 굳건히 하는데 일조했다.



2017년 사업계획 발표회

현대삼호중공업은 12월 14일 윤문균 사장을 비롯한 전 임원과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사업계획발표회'를 열었다.

현대삼호중공업의 올해 수주 목표는 25억900만달러, 매출 목표는 2조7천250억원으로 정해졌다

윤문균 사장은 총평에서 "내년은 올해보다 건조물량이 30% 줄어드는데 따른 급격한 매출감소로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영방침으로 정한 '안전하고 보람찬 일터 조성, 기본과 원칙 준수'로 내실 강화, 최고의 품질로 고객감동 실현'을 통해 사업목표를 꼭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 어려운 이웃에 온정 전달

현대삼호중공업 노사가 연말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해 함께 나섰다.

회사와 노동조합은 12월 14일 삼호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우수리기금으로 마련한 200만 원 상당의 영암사랑상품권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삼호읍의 어려운 이웃 10세대에 20만 원씩 전달됐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은 이번 행사에 앞서 인근 지역의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대상으로 후원금과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등 지역민과의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신축 '의장 보온 셸터' 사후 평가회

현대삼호중공업은 12월 9일 본관 2층 교육장에서 신축 의장 보온 셸터 투자에 대한 사후 평가회를 열었다.

의장 보온 셸터가 설치되면서 의장재가 눈이나 비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예상보다 높은 생산성 증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축 셸터로 인한 노무비와 재료비 등 비용절감액도 연간 약 2억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팀, 무재해 전사 최고 기록 달성

현대삼호중공업 공사지원부 지원팀이 전사 최초로 무재해 20배를 달성했다.

지원팀은 2008년 4월 1일부터 2016년 11월 17일까지 8년 6개월여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기록하지 않아 대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12월 12일 생산관 7층에서 열린 무재해 팀 포상식에서 이상균 전무는 지원팀에 무재해 20배 달성 인증서와 함께 포상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 하이자산운용 |



국내 최초 로보어드바이저 펀드 운영

하이자산운용(대표이사: 이정철)이 12월 7일 키움증권과 합작해 '하이 ROK1 글로벌 로보어드바이저'를 출시했다.

이 펀드는 사람 대신 인공지능이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알고리즘(로보어드바이저)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미국 상장 주식과 채권, 원자재, 환율 등과 연관된 상장지수펀드(ETF)에 중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한다.

이는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합작해 내놓은 최초의 펀드로, 하이자산운용은 다년간의 펀드운용 경험을 키움증권의 로보어드바이저 기술과 결합해 최적의 글로벌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현대E&T |



‘이달의 현대E&T인’ 포상

현대E&T(대표이사: 이군재)가 12월 5일 조찬회에서 ‘이달의 현대E&T인’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대E&T는 각 부문에서 활약한 5명의 우수 직원을 선정해 표창과 함께 포상금을 전달했다.

안전부문에서는 작업장에서 신속한 안전 조치로 화재 등의 사고를 막은 정재명 사원, 김안나 사원, 이재익 사원이 선정됐으며, 품질검사부문 수상자는 꼼꼼한 검사로 성공적인 선박 건조에 기여한 이상훈 선임, 손현중 사원이 각각 선정됐다.

현대E&T는 매달 첫째 주 뛰어난 업무 성과로 고객사의 만족을 이끌어낸 직원들을 ‘이달의 현대E&T인’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 서울아산병원 |



이상도 신임 병원장 선임

서울아산병원이 이상도 진료부원장(호흡기내과 교수)을 제 16대 병원장에 선임했다.

이상도 병원장은 지난 1982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내과 전공의와 전임의를 수료했으며, 이후 서울아산병원 진료지원실장과 기획조정실장, 진료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호흡기 및 폐질환 권위자인 이상도 병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만성기도 폐쇄성질환 임상연구센터 소장으로 국내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료지침을 수립하였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 아시아 12개국 연구자 모임인 ‘폐쇄성폐질환 아시아 네트워크(ANOLD)’의 책임 연구 교수로 활동하는 등 호흡기 및 폐질환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정응기 신임 병원장 선임

울산대학교병원이 제 11대 울산대학교병원장으로 영상의학과 정응기 교수를 선임하고, 1월 2일 취임식을 가졌다.

복부 영상 분야 권위자인 정응기 신임 병원장은 지난 1987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병원과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을 거쳐 지난 1998년 울산대학교병원에 부임했다.

이후 울산대학교병원에서 기획실장과 진료부원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2012년 신축 암센터 건립, 2014년 상급종합병원 승격 등을 이끌어 병원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 울산대학교병원 |



기술창업 아이템 발표회

울산대학교(총장: 오연천)가 12월 1일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산학협력리더스관에서 교내 기술창업동아리의 사업 아이템을 발표하는 '지니어스 팩토리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울산대학교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으로 육성한 기술창업동아리 11개팀이 참가해 기술창업 성과를 공유했다.

행사는 시제품 전시, 외부 전문가 투자 평가회, 창업 아이템 가상 투자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학생들의 2차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울산대학교는 우수 창업동아리 육성 프로그램과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총 69개의 기술창업팀을 육성했다.

| 울산대학교 |



동경제과학교 교수 초청 특강

울산과학대학교(총장: 허정석) 호텔외식조리과가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일본 동경제과학교 교수를 초청해 '제과제빵 전문가과정' 특별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에는 설탕공예와 초콜릿 분야에서 일본 정상급 전문가로 평가받는 신도 나오미(Shindo Naomi) 교수가 고급 양과자 및 제빵 실연실습을 집중 교육했다.

지난 1954년 설립된 동경제과학교는 세계 3대 제과학교로서 우리나라 1세대 제과제빵 기술자인故김충복 명장 등 700여명의 한국 유학생을 배출했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울산과학대학교에서만 '제과제빵 전문가과정' 연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울산과학대학교 |



쌀쌀한 겨울밤 달굴 '폭발적인 가창력'

호소력 짙은 목소리, '라이브의 황제' 가수 정동하가 올산을 찾는다. 전설적 밴드 부활의 보컬리스트 출신인 그는 록, 발라드,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때론 감미로운 목소리로 때론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대중들을 매료시켰다.

정동하는 각종 음악 프로그램에서도 큰 활약을 펼쳤다. KBS '불후의 명곡'에서는 8회 우승, 역대 최고 점수 등을 기록하며 프로그램 흥행에 큰 역할을 했으며, 지난 가을에는 MBC '복면가왕'에 출연해 4연속 '가왕'에 올랐다.

더불어 솔로음반의 수록곡을 직접 작사, 작곡하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 스타성뿐만 아니라 예술성까지 인정받는 아티스트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정동하가 가장 빛나는 무대는 역시 콘서트다.

정동하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대중 여러분들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며, 대중과 직접 소통하고자 하는 열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탁월한 기교와 강렬하고 짙은 호소력, 심금을 울리는 표현력과 뛰어난 무대매너로 관객을 만족시킬 단 하나의 콘서트!

정동하 'The Artist: 소리에서 라이브의 황제와 만나보자.'



- 일 시 : 2월 11일(토) 저녁 7시
- 장 소 : 현대예술관 대공연장
- 티켓가 : 1층 9만9천원, 2층 7만9천원
(임직원 30~50% 할인)



국악계 스타 '충출동' 신명나는 우리 가락

현대예술관이 '2017 국악드림콘서트'로 신명나게 새해를 연다.
조기 매진을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끌었던 지난해 공연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올해는 더욱 풍성해진 볼거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김성녀, 남상일, 서정금 등 국내 최고의 국악 명창들과 함께, 사물놀이의 대가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흥을 돋운다. 이들은 20인조 공감국악관현악단이 선사하는 풍부한 연주에 맞춰, 각기 다른 매력으로 국악의 맛을 전한다.
가창력은 물론, 뛰어난 입담, 화려한 무대 매너까지 자랑하는 국

악 스타들이 꾸미는 국악드림콘서트는 전통 국악부터 현대 퓨전 국악까지 아우르는 공연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2017 국악드림콘서트'와 함께 정유년 새해를 힘차게 열어 보자.

- 일 시 : 2월 16일(목) 저녁 8시
- 장 소 : 현대예술관 대공연장
- 티켓가 : R석 8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임직원 30~50% 할인)

프로필



김덕수 사물놀이패

한국 전통음악의 살아 있는 역사인 김덕수는 '사물놀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든 장본인이다. 그의 사물놀이패는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 50여개국에서 5천500회가 넘는 공연을 하며, 한국의 전통 예술을 널리 알리고 있다.



김성녀

국내를 대표하는 여러 명인에게 판소리를 배운 김성녀는 국악, 연극, 뮤지컬, 드라마 등 다방면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새로운 고전'을 써나가고 있다. 특히 '마당놀이'라는 장르를 만들어, 30년간 250만 관객을 동원한 '마당놀이의 여왕'으로 불린다.



남상일

빠어난 판소리 실력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유명한 남상일은 '국악계의 아이돌'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복면가왕, 불후의 명곡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했을 뿐 아니라, 타 장르와의 협연을 통해 국악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서정금

동편제 강도근 명창과 서편제 안숙선 명창에게 소리를 배운 그는 시원시원한 가창력과 재기발랄한 말솜씨로, '국악계 재간둥이'라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공감국악관현악단

20인조로 구성된 공감국악관현악단은 차별화된 연주로 국악의 생활화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현대예술관 공연 및 전시



내셔널 지오그래픽 '미지의 탐사 그리고 발견'

- 일 시 : 2월 5일(월)까지
(오전 11시~저녁 7시 30분, 월요일 휴관)
- 장 소 : 현대예술관 미술관
- 관람가 : 성인 8천원, 학생 6천원(임직원 1천원 할인)



서혜경 피아노 리사이틀

- 일 시 : 3월 9일(목) 저녁 8시
- 장 소 : 현대예술관 대공연장
- 관람가 : R석 6만5천원 / A석 4만원 / B석 2만원
(임직원 30~50% 할인)

“골 넣는 팀 만들어 화끈한 경기 선보일 것”

뛰어난 신체조건과

천부적인 골 감각으로 K리그를 호령했던

‘토종 폭격기’ 김도훈이 선수가 아닌

감독으로 울산에 돌아왔다.

선수들과의 첫 훈련을 마치고

스페인 전지훈련을 준비 중인 김도훈 감독을

울산현대 클럽하우스에서 만났다.

‘골’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

스트라이커 출신 감독인 만큼 울산현대

사령탑으로서의 다부진 목표와

각오를 들을 수 있었다.



▲ 김도훈 신임감독의 인터뷰를
블로그 hihi에서 영상으로 만나 보세요

필드에서의 김도훈은 대단한 업적을 가진 선수다.

선수가 아닌, 감독으로서 자신을 소개한다면.

“울산을 상대로 골을 많이 넣었던 축구선수였다. 감독으로서 3년차를 맞는 ‘초보 감독’으로서 울산이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 이름은 김도훈이다.”

오랜만에 돌아온 모교(울산 학성고)의 도시다. 기분이 어떤지.

“돌아오는데 30년이 걸렸다. 울산은 내 젊음을 불태운 곳이고, 학성고 시절 청소년 대표에 뽑히며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다는 등 자랑스럽고 좋은 기억이 가득한 곳이다. 기분이 매우 좋다”

울산 측 감독 제의에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들었나.

“처음에는 많이 놀랐다. ‘진짜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웃음)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동경하던 구단의 감독이 돼 영광스럽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책임감과 부담감,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는 선수 시절부터 겪어왔다. 선수들과 구단, 그리고 팬들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

선수들과의 첫 만남은 어땠나.

“축구 지도자로서 선수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맘을 흘리는 것은 늘 기쁘고 두근거리는 일이다. 선수들 역시 적극적으로 첫 훈련에 참여해줘서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고 고마웠다.”

부임 첫 행사로 현대중공업의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여했는데.

“따뜻한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현대중공업에 감사드린다. 프로이기 때문에 팬들을 위한 행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선수 시절에는 그런 기회가 적어서 아쉬웠는데, 우리 울산 선수들이 팬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김장은 태어나서 처음 담가봤다. 양념을 너무 많이 발라서 옆에 계신 아주머니에게 짜다고 혼났다.”

인천에서 선 굵은 역습 축구를 선보이며 ‘늑대 축구’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본인의 축구 스타일과 울산현대의 궁합은 어떨 것 같나.

“울산현대는 ‘철퇴 축구’로 유명한 팀이다. 선수들의 특징과 장점을 잘 파

악하고 필요한 전술을 적재적소에 더한다면 다시 한 번 새로운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이다. 무엇보다 축구 명가 울산에 걸 맞는 경기를 선보일 계획이다.”

특별히 만나고 싶은 선수나 지도하고 싶은 선수가 있었는지.

“김인성 선수는 인천에서, 이용대·김성환 선수는 성남에서 호흡을 맞춰본 경험이 있어 스타일을 잘 알고 있다. 뛰어난 유스(Youth) 시스템과 선수들을 갖춘 울산이기 때문에 특정 선수가 아닌 선수단 모두에 거는 기대가 크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다. 2017 시즌 울산현대의 순위는 어떻게 예상하나.

“예상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부담이 가는 질문이다. 지난 시즌의 경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AFC) 진출에 대한 경우의 수를 따지다 보니, 필요 없이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다. 구체적인 K리그 예상 순위를 말하기에 앞서 자력으로 AFC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다. 꼭 그렇게 만들겠다.”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

“울산은 사이드를 통한 공격이 좋은 팀이다. 다시 말해, 양쪽 크로스에 의한 득점 생산력은 리그 최상위권의 실력이다. 다만, 미드필더를 통한 유기적인 플레이가 골로 연결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팬들의 만족을 위해 사이드와 중앙을 모두 활용하는 다양한 공격 전술과 루트가 필요하다.”

끝으로 울산현대와 김도훈 감독을 사랑하는 팬들에게 한 마디.

“울산의 화성고를 나와 현대중공업을 잘 알고 있다. 그 어느 지역의 팬들보다 열정적이고 진심으로 축구를 사랑하는 것 같다.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명문 구단인 울산의 감독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 시민과 현대중공업 직원분들께 화끈하고 멋진 경기로 보답하겠다. 기대해달라.”



‘엄마 맘에 쏙 드는’ 방과 후 교실



한마음회관 키즈케어 아카데미

모집 대상 : 맞벌이가정 초등학교 1~2학년 아동

차량 지원 가능 학교 : 서부, 전하, 미포, 명덕초등학교

교육비 : 월 22만원 (교재비 및 간식비 별도)

문의 : 한마음회관 ☎209-7900/7910

‘방과 후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을까? 다양한 시설과 교육적인 프로그램까지 갖추고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이러한 엄마, 아빠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한마음회관이 ‘키즈케어 아카데미’를 열고 있다.

키즈케어 아카데미는 초등학교 1~2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교실’로, 어린이도서관, 수영장, 피아노 교실, 미술 교실 등 한마음회관의 풍부한 시설을 이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학교가 끝나는 오후 1시부터 엄마 아빠가 퇴근하는 저녁 6시까지를 책임져 주는 키즈케어 아카데미는 학교 앞에서부터 시작된다.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한마음회관으로 등원하면서, 대화를 통해 아이들의 학교생활과 기분, 건강상태 등을 체크한다.

프로그램은 학습지도, 간식시간, 휴식, 특기적성교육, 독서교육, 특별활동, 인성교육 등으로 이루어진다.

특기적성교육 시간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해 요일별로 독서논술, 창의사고력, 영어, 종이접기, 전통놀이 등이 진행된다.

특히 컴퓨터나 휴대폰 게임에 익숙해져 있는 요즘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전통놀이를 즐기는 시간은 대인관계에 필요한 경청, 배려, 협동 등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돼 의미가 있다.

금요일에는 특별활동을 진행하는데, 쿠키 만들기, 찰흙공예, 목공예, 비즈공예, 풍선, 저수지 산책, 과자파티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가득하다.

아이들이 스스로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다양하고 색다른 활동들이 준비된다.

키즈케어 아카데미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담임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아이들은 각 담임선생님의 책임 있는 관리 하에서 안전하게 뛰어놀다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간다.

원장 양윤지 선생님은 “저 역시 한 초등학교생의 엄마이기에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키즈케어 아카데미의 선생님은 간식 하나를 마련할 때도 원산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영양을 고려하는 등 최대한 건강한 음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아이들이 혼자 있을 오후 시간이 걱정되는 맞벌이 부부라면 안전, 교육, 인성까지 책임져 주는 키즈케어 아카데미의 문을 두드리 보자. 새 학기는 3월부터 시작되며, 2월까지 신입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취재 김숙희 현대중공업 주부리porter



지금처럼만, 항상, 행복하게

이정미 | 현대미포조선 종합설계부



4년 전, 현대미포조선 입사 통보를 받고 설레는 마음과 부푼 꿈을 안고 울산에 첫발을 내딛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기란 녹록지 않았다. 게다가 여전히 남성 중심의 문화가 있는 곳에서 여자인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불안과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함께 입사한 동기들이 가족처럼 때론 친구처럼 곁에 있어줘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었다.

동기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얘기,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 등을 나누며 보낸 시간은 소소한 즐거움 이자 삶의 활력소가 됐다.

이러한 만남 속에서 나는 한 동기와 부쩍 친해졌다. 나와 그사람은 서로 성격이 비슷해서인지 말도 더 잘 통하고 취미나 취향도 비슷해 공감대가 많았다.

퇴근 후 갑작스럽게 연락해도 흔쾌히 저녁 식사를 함께 해주던 그의 모습은 감동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더욱 편안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그렇게 2년여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동기이자 친구로서 오랜 시간을 지내온 덕분인지 갓 시작한 연인 사이임에도 마치 오래 만난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다.

서로에 대해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도 동기로 만났을 때는 몰랐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고, 서로의 일상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재미있고 즐거웠다.

간혹 다툼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서로의 다른 모습을 알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며, 서로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보완해나가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레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 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지난해 10월 15일 결혼에 골인하게 됐다. 결혼식장을 정하는 것부터 집을 마련하고 그밖에 새 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서툰 부분도 많았고 막막한 적도 많았다. 하지만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

하고,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서로 한 발짝 물러나 양보 하면서 하나씩 차곡차곡 이루어나갔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 결혼식을 치르고 꿈만 같았던 신혼여행도 다녀왔다.

이제는 어엿한 한 가정을 이루었고 한 사람의 아내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에 대한 설렘도 있지만, 부모님께서 챙겨주시던 모든 것들을 직접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도 됐다.

아직 부족한 것도 많고 서투른 내가 삼시세끼 밥은 잘 챙겨먹고 다닐 수 있을까? 집안일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들지만, 곁에서 함께 도와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남편이 있어 든든하다. 또한 걱정했던 것보다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 스스로 뿌듯함을 느낀다.

직접 아침을 차려 같이 먹고 출근하는 것, 저녁 때 돌아와서 맛있는 식사 후에 시원한 밤공기를 맞으며 산책하는 것, 가끔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 하루의 피로를 푸는 것, 주말에는 밀린 빨래와 청소도 하고 부족한 잠도 보충하는 등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남편과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하다.

이제 막 시작한 결혼 생활이라 서툰 점도 많고,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힘든 순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서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가며, 의지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 변치 않는다면 더없이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여행으로 더욱 끈끈해진 학우愛

류종완 | 현대중공업 전전시스템품질경영부

저는 지난해 현중공과대 조선해양과를 2기로 졸업했습니다. 졸업을 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자 함께 공부를 하며 우정을 쌓아온 12명의 학우들과 저희를 가르쳐 주신 홍진욱 교수님을 모시고 일본 오사카 여행을 다녀 오기로 했습니다. 다들 바쁘게 사는 터라 일정 잡기가 쉽지 않았지만, 마침 10월 초에 연휴가 있어 그 때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드디어 일본으로 출발하는 날, 태화로타리 주차장으로 이영진 학생장님께서 배웅을 나오셨습니다. 사정이 있어 함께 가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는데 그렇게라도 얼굴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일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며 소주까지 선물해주셨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한 일본 여행은 도착하자마자 고행 길로 바뀌었습니다. 여행 며칠 전 지진이 나는 바람에 계획했던 철도가 운행을 하지 않아 숙소 도착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간신히 도착한 숙소는 4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우리끼리 밤새 떠들어도 될 것 같은 독립적인 공간이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본 집은 좁다고 들었는데 정말 좁고, 위로 기다랗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짐을 풀고 오사카의 변화가라고 하는 도톤보리가 우동 한 그릇으로 허기진 배를 달렸습니다. 평범한 우동집이었는데도 면이 쫄깃하고 양도 제법이었습니다.

첫째 날은 도톤보리에서의 자유일정이어서 길을 익힐 겸 사진을 찍으며 돌아다녔습니다. 한국의 연휴라 그런지 한국 사람들도 제법 눈에 띄었습니다. 어느 여행이나 그렇지만 사진 찍는 것이 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형 뽑기 가게가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곳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인형을 마주하자 뽑고 싶은 욕심에 계속 돈

을 넣다 보니 결국 엄청난 돈을 쓰고 말았습니다.

뽑힐 듯 뽑히지 않는 미꾸라지 같은 인형이 애석하기만 했습니다.

옆에 있는 점원도 매우 안타까워했고 결국 점원에게 스페셜 서비스를 요청하여 인형을 좀 앞으로 옮긴 후 커다란 인형을 몇 개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점원을 살살 고시는 것이 인형 뽑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이튿날 일정은 역사가 살아 숨 쉬고 세계문화유산이 17곳이나 있다고 하는 교토였습니다. 본격적인 교토 관광을 하기에 앞서 가는 길에 켄토리 맥주 공장을 견학했습니다. 맥주 공장은 사전에 예약만 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40분 정도의 견학과 20분의 시음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설명을 해주는 작은 기계도 있었으나 목적은 따로 있었기에 견학은 눈으로만 즐기고 시음 코너로 전진했습니다. 보리와 홉이 발효되고 여과하는 과정 등을 감상하고 드디어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각자 땅콩 봉지를 하나씩 받고서 기분이 조금 좋아질 때까지 마셨습니다. 인당 3잔씩 제한이 있었지만, 몇 명은 안 마시는 사람들 것까지 맛을 음미하였습니다. 맛있게 맥주를 따르는 방법까지 배우고 나왔습니다.

오후에는 교토의 청수사(清水寺)에 갔습니다. 청수사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기온역에서부터 청수사까지 끊임없이 걸어야 했습니다.

10월 초의 교토의 날씨는 매우 더웠습니다. 걷고 또 걷고 “얼마나 남았나” 물어보면 “곧 도착”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양 옆에 펼쳐져 있는 기념품 가게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일정을 짠 사람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얼마나 대단한 절이 있나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절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절의 일부는 공사 중이었고 사람이 너무 많아 서 있을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

다. 그래도 교토의 유명한 절을 하나 봤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내려오면서 자유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되면 정해진 장소로 모이기로 했는데, 나이가 가장 어린 20대 동기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젊고 뚱뚱한 아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떼어 놓고 갈 수가 없어서 저희 일행은 졸지에 일본에서 다 큰 어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길을 잃었던 어린 양은 핸드폰 로밍을 풀고 전화를 해 택시를 타고 와서야 무사히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해외에서 사람을 잃어버리니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교토는 옛날 건물을 그대로 두고 길을 요리조리 만들어서 처음 가보는 사람들이 헷갈리기 쉽다고 했습니다. 또 저희는 청수사까지 가는 길을 맥도날드를 기준으로 파악했는데, 곳곳에 맥도날드가 너무 많아서 헷갈렸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동기를 찾느라 진이 다 빠진 저희 일행은 숙소에서 들어 온 후 녹초가 됐습니다. 현대 일본 오기 전 학생장님이 주신 소주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지원해준 학생장의 성의를 봐서라도 주신 것은 마셔야 한다는 생각에 새벽 2시에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학생장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고자 인증샷도 찍었습니다.

공과대 재학 중 저랑 매우 서먹한 사이로 지내던 분이 있었는데, 술에 힘을 빌려 그 동기와 러브샷을 했습니다. 러브샷 한 번으로 그간의 오해는 온데간데없이 녹아내렸습니다.

셋째 날에는 오사카성을 보고 아리마 온천에 갔다가 고베로 야경을 보러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피곤하고 비까지 왔으나 동기들과 함께였기에 즐거웠습니다.

온천으로 쌓인 피곤을 풀고 고베 야경으로 눈을 호강시

키니 여행 중의 힘들었던 순간들조차 좋은 추억으로 바뀌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무사히 귀국하였습니다.

공과대에서 열심히 함께 공부했던 동기들은 각자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아니라 현대미포조선에 근무하시는 동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외여행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끈끈한 학우애가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한 경험을 살려 저희들의 좋은 가이드가 되어 주신 홍진욱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중 공과대 2기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끈끈한 학우애가 변치 않고 좋은 인연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일본 여행 정말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해양과 파이팅!”





낭만의 도시, 파리에서의 근사한 시간

은미경 | 현대삼호중공업 인력개발부

문득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어디든, 지금껏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곳으로 말이다.

혼자 하는 여행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이 적기인 것 같아 여행 가방을 싸게 됐다.

목적지는 늘 꿈꿔왔던 유럽의 도시였다. 혼자 떠나는 여행은 제주도가 전부였던 나에게 해외, 그것도 유럽은 무모한 도전 같았다.

여름 휴가기간이 아닌 때에 긴 휴일을 만드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다행히 10월에 창립기념일을 이용하면 4박 6일 정도의 시간을 낼 수 있겠구나 싶었다.

일정을 확정된 뒤, 여행지를 프랑스 파리로 정했다.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이 뒤따랐다. 그래도 파리는 서울의 6분의 1 크기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혼자자도 찾아다니기에 무리가 없을 것 같았다. 이어서 비행기와 숙박 등의 예약을 마쳤다.

계획은 큼직하게만 세워두고, 꼭 하고 싶었던 현지 스냅 사진 촬영을 일정에 넣어뒀다. 그렇게 큰 우여곡절 없이 나만의 준비가 마무리됐다.

여행 당일, 12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파리에 발을 디뎠다.

여자 혼자 다니는 여행이니 파리에서 치안이 가장 좋다는 1존으로 숙소를 잡았다.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한인민박이라서 대화도 잘 통했고, 같이 묵는 사람들과도 금방 친해질 수 있는 분위기였다.

그곳의 사람들은 여행 일정을 짜는 것에도 많은 도움을 줬고, 저녁에는 와인이며 치즈며 맛보라고 아낌없이 내줬다.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에펠탑이었다. 거대하고 웅장한 에펠탑을 보자 내가 파리에 와 있다는 것이 실감났다. 마치 낭만적인 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했다. 이곳에 있는 동안 하루에 한 번은 꼭 에펠탑을 눈

에 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낮에도 아름답지만, 조명이 빛나는 밤의 모습이 더 근사했다.

파리의 관광지는 모두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모여 있다. 그저 에펠탑을 중심으로 발길 닿는 대로 걸었고, 그것이 바로 나의 여정이 되곤 했다.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예술의 도시답게 길거리, 지하철역, 지하철 내부 등 어디에서나 공연을 마주할 수 있었다. 여행하는 내내 귀가 즐거웠고, 작은 카메라에 다양한 사람들을 담을 수 있었다. 알고 보니 파리는 예술가가 워낙 많아서 지하철에서 공연을 하려면 시에서 주최하는 오디션 통과해야 한다고 한다.

사랑하는 연인과 공원 잔디에 누워 바게트를 먹는 모습을 보며 나도 등을 대고 누워봤다. 파란 하늘을 마주하니 나른해졌다. 낯선 곳에서 나른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즐거운 경험이었다.

파리에서의 적응기간이 지나고, 고대하던 스냅사진 촬영 날이 왔다. 파리에 상주하는 한국인 작가와 2시간 동안 함께 호흡하며 촬영을 했는데, 그에게서 듣는 풍부한 이야기거리에 지루할 틈이 없었다.

유쾌하게 들려오는 셔터 소리에 맞춰 다양한 포즈를 취해봤다.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시간이었다.

4주 뒤 메일로 사진을 받아 봤는데, 그 장면들을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그때의 감정이 오롯이 전달되는 것 같아 선물을 받은 듯 기분이 들었다.

짧은 일정 탓에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 몽마르뜨언덕으로 가는 길에 초상화 그리는 화가들이 모여 있는 거리를 그냥 지나치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나는 어느새 화가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림에만 온 정신을 몰두하고 있는 화가의 모습을 보며 동경심도 들었고, 내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지 기분 좋은 상상도 하게 됐다. 20분 정도 지났을까. 완성된 나의 모습이 날 또 웃음 짓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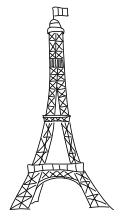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고 떠난 터라 구글맵과 씨름하며 길을 헤맨 적도 많았지만, 마지막 날에는 지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파리 거리에 익숙해져 있었다. 나도 파리 지엔느가 된 걸까 싶었다.

민박집 주인의 추천으로 줄까지 서가며 맛보았던 파리의 베트남 쌀국수, 몽수리 공원에서 한국말로 인사해주던 할아버지, 스타벅스에서 계산을 하다가 떨어뜨린 동전을 '마담'이라 부르며 주워준 귀여운 꼬마, 민박집 게스트들과 야경투어를 하며 먹었던 맥주, 1664 블랑, 에펠탑 열쇠고리 가격을 흥정하느라 실랑이했던 흑인 오빠, 사고 싶었던 지갑을 사기 위해 4곳의 매장을 돌아다니다 마침내

원하는 색을 찾은 순간, 유료 화장실 값을 아껴보려 들어간 식당에서 혼자 먹은 코스 요리의 환상적인 맛, 숙소에 들어가기 아쉬워 마지막 승선 시간에 탄 바토무슈 유람선, 마지막 날을 아쉬워하며 소등시간이 지날 때까지 파리에서의 에피소드를 안주 삼아 마신 와인까지.

모든 것이 추억이 된 지금, 가끔 그 때 찍었던 사진을 들춰보며 다시 한 번 행복을 느낀다.

짧아서 더 좋았던 파리에서의 4박 6일은 회사를 떠나기 전 나에게 주는 가장 뜻 깊은 선물이었다.





달콤 쌉싸름한 허니문의 추억

김동주 | 현대미포조선 품질경영부

저물어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난 2016년을 돌이켜보니 기억에 남는 많은 추억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으라면 자신 있게 신혼여행이라 말하고 싶다.

남들은 신혼여행이 단순히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이기에 두고두고 잊지 못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여행은 순탄치만 않았기 때문에 더욱 잊지 못한다.

지난 6월 우리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했고, 프랑스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생애 첫 해외여행이라 긴장도 됐지만, 신혼여행이란 기쁨으로 마음이 들떠 있었다.

하지만 이런 기쁨도 잠시 출발 전부터 많은 비로 인한 홍수가 도시를 덮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머릿속이 캄캄해졌다. 파리 관광객들의 쉼터 노릇을 하던 강변 산책로는 죄다 물에 잠겼고, 강변에 위치한 오르세미술관과 루브르박물관은 휴관을 했다.

울며 겨자 먹기 심정으로 우리는 설렘 대신 걱정만 가득 안고 파리로 떠났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가 파리에 도착하니 비는 그쳤고, 택시를 타고 숙소로 가는 길에 보이는 파리 시내의 물도 거의 빠진 상태였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현지 상황에 만족하며 우리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우릴 반겨준 것은 개선문이었다. 개선문은 에펠탑과 함께 파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명소로 프랑스군의 승리와 영광을 기념하기 위해 나폴레옹 황제가 건립했다. 높이와 폭이 약 50미터에 달하는 웅장한 크기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우리는 13시간 비행의 피로도 잊은 채 말없이 거대한 조형물을 바라봤다.

이튿날부터 오르세미술관, 루브르박물관, 콩코드광장, 에펠탑 등 파리 곳곳에 있는 관광 명소를 살살이 살펴 보았다. 루브르박물관은 너무 넓어서 전체를 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고, 가장 유명하다는 모나리자 앞에서 사진 한 장 찍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이렇게만 여행이 흘러가면 좋으련만, 갑자기 우리에게 불행이 닥쳐왔다. 와이프의 여권이 없어진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파리에서 니스로 가

는 전날 밤 알았다. 부랴부랴 대사관에 전화를 하여 임시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기준에 예약한 비행기 탑승은 불가능했다.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티켓을 취소하고 다른 비행기로 급하게 예약을 했다.

대사관에서도 시간 약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사관 문 앞에서 2시간을 기다린 끝에 겨우 예비여권을 발급 받았다.

예정과 다르게 늦은 밤 니스에 도착했다. 예약을 해둔 렌터카 회사는 이미 퇴근을 해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숙소로 들어갔다. 여권 하나 분실했을 뿐인데 많은 시간과 돈을 손해 봤다.

이처럼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로인해 더 기억에 남는 신혼여행의 추억이 생겨 만족한다. 첫 해외여행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 다음 여행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해도 의젓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2017년에는 와이프와 함께 이탈리아에 갈 계획인데, 이번에는 부디 무사히 다녀올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화 성



권운욱 | 현대중공업 배전반연구개발실

겨울은 차다.
입감을 뿔으며
온 우주에서 모인 쓰레기들이
붉은 먼지바람에 섞이지 못해 묻힌다.
“쓸 만한 것이 없음에도 쓸 것은 언제나 있더라.”
어머니께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도
그 어머니께서 늘 그런 말을 했던 것처럼
기억 속 목소리가 들리는 듯도 싶었지만,
들린 적은 없었다.
빼그덕이며 기울어가기에
누군가 버렸을 컨테이너 단칸방은
또 같이 버림직한 문도 하나 없이
깨진 거울만 찰랑이고
2요일이 생략된 채 찢어진 달력 한 페이지는
10년째 벽에 붙어 그리 오늘이 10년째임을 알린다.
쓰레기 산에 해가 밝아
날리다 쌓인 먼지 발강게 물이 들어 오르건만
왜 2요일이 없냐며 징장대는 내게
방 나가려던 어머니는 어찌 대답 대신 구박이던가.
그런 어머니를 졸래졸래 따라 나가선
깡통 하나 야 들고
쓰레기 쓰레기 산 넘어 간다.

BOOK 이 책을 추천 합니다

1



심연 (배철현 著)

기존의 가치관들이 무너진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저자는 요즘 현대인들이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를 외부의 평가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잠시 멈춰 서서,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헤아리는 훈련이라고 조언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담담하게 바라보고 자기다운 삶을 당당히 살아가라고 용기를 줍니다. 기꺼이 인생의 초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정영훈 차장
현대중공업 조선생산품질지원부

2



약간의 거리를 둔다 (소노 아야코 著)

이 책은 객관적 행복을 좇느라 자신을 속박해온 통념으로부터 벗어나 '나답게 사는 삶'으로 가볍게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짧은 글귀들은 소소하지만 중요하고, 어이없을 정도로 간단하지만 감히 뒤집어볼 엄두조차 내지 못한 것들이기에 신선합니다. 특히 저자는 '나 다운 삶'의 처방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좋아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출퇴근용으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이 책을 현대중공업그룹 사우들에게 추천합니다.

이승호
현대미포조선 선체생산설계부

3



열한 계단 (채사장 著)

다독하는 것과 지식이 넓은 것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어도 우물 안에 갇혀 있기가 쉽죠. 이 책의 저자는 '나에게 불편한' 책을 권합니다. 내가 갖고 있던 생각과 정반대여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지식만이 내면에 균열을 일으켜 나를 한 계단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저자를 따라 계단을 오르는 동안, 우리는 아직 닿지 못한 계단의 질문들과 마주하며 우물 밖을 조금씩 내다보게 됩니다.

김준남 과장
현대삼호중공업 구조설계부

4



고양이는 내게 행복하라고 말했다 (에두아르도 하우레기 著)

내 삶의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은 순간, 주인공의 삶에 '나 좀 들여보내줄래?'라고 말하는 고양이가 등장하며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린 소설입니다. 처음에는 행복에 관한 소설이라고 생각했지만, 책을 덮고 난 뒤에는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알려주는 철학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삶에서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책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고민들을 외면한 채 행복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삶의 균형을 되찾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주는 따뜻한 '힐링북'입니다.

백정순 대리
현대중공업 회전기연구개발실

좋은 책을 추천해 주세요.

사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책을 추천해 주세요. 사보를 통해 소개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각 사별 사보편집실 또는 이메일 (현대중공업 wgusdl104@hhi.co.kr / 현대미포조선 yhlee7@hmd.co.kr / 현대삼호중공업 aj527@hshi.co.kr)

5



가장 쉬운 독학 이세돌 바둑 첫걸음 (이세돌 著)

연초 인공지능(AI) 알파고와 이세돌 간의 대국을 보고 바둑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책을 구입했습니다.

이 책은 바둑의 기본 개념부터 바둑 상식, 이세돌 9단의 에피소드 등 초보자가 접하기에 전혀 부담이 없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동영상 강의도 있어 혼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개념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바둑은 단순 취미활동에서 벗어나 창의력, 수리력, 계산력, 집중력, 인내심 등을 얻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새해에 새로운 취미를 가지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강태원 과장
현대미포조선 선제조립부

6



세상의 끝, 오로라 (이효준 著)

죽기 전에 꼭 한 번 눈으로 보고 싶은 장면, 오로라.

이 책은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해 노르웨이 트롬쇠, 그리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는 여정을 따라 오로라 탐험을 떠난 여행의 기록입니다.

눈 덮인 유럽 15개국을 캠핑카를 타고 누비는 황홀한 여행의 묘미를 간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로라는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모습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베테랑 사진가가 담은 책 속의 사진을 통해 근사한 구경을 해볼 수 있으니, 만 얼마 하는 책값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고연우
현대삼호중공업 HS-POPS팀

7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 (김창욱 著)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라는 고민을 하지만, 막상 어떤 변화와 준비를 해야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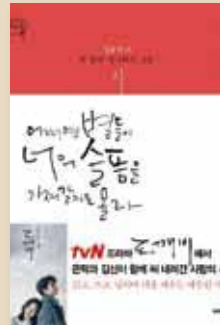
정신과 의사이자 스타강사로 유명한 김창욱 교수가 삶의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35편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특히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삶의 작은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험과 방법을 제안하며 위로와 응원, 힘 있는 자극을 주는 책입니다.

'아무 일'을 겪어낸 모든 이들에게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안내할 것입니다.

배영준 과장
현대중공업 영업기획부

8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갈지도 몰라 (김용택 著)

그저 읽고 감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따라 써보는 '필사'는 시를 즐기는 좋은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평소 좋아했던 김용택 시인이 여러 문인의 시 중 101편의 시를 엄선해 필사책으로 냈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드라마 '도깨비'에서도 여주인공이 필사한 책 한 권이 등장해 화제가 됐지요. 스스로를 위로하기에 적절한 책입니다.

정다정
현대삼호중공업 인력개발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회사 설립하기!

이번 호에서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법률상식이 있다면 사례와 함께 제
보해 주세요! 사보편집실에서는 생활 속에서 궁금
했던 법률 상식을 쉽고, 재미있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보내실 곳

현대중공업 국내법무팀 정지원 변호사
(geewon@hhi.co.kr), ☎02-746-4667



공인인증서·상호 등 미리 준비해야

우선 주식회사 구성원이 될 개인 명의로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사이트(www.startbiz.go.kr)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설립할 회사의 상호를 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상호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설립할 회사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통상 법원)에 동일, 유사 업종으로 등록된 동일, 유사 상호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리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법인등기 검색/열람을 통해 설립할 회사의 본점에 어떤 상호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중복되지 않는 상호를 잘 선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구성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법인등록 면허세 감면 신청서류, 자본금 통장, 최저자본금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시스템 매뉴얼 참조)

주식회사 설립의 7단계

1단계로 '법인 유형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으니 '주식회사(발기설립)시작'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기본 정보·서식 작성' 단계로 넘어가 법인 설립과 관련된 기본 정보를 기재합니다. 회사명란에는 미리 정해 놓은 상호를 기재하고, 발행 주식정보에는 1주의 금액을 얼마로 할지, 자본금은 얼마로 할지를 적습니다.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기재해야 하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그 사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 때 향후 사업 범위 확장이 예상되는 사업의 목적도 함께 기재해야 정관 변경, 변경 등기 등의 추가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구성원란에는 '발기인 대표'를 기재합니다. 발기인 대표는 주식회사의 기본정보 등록 및 잔액증명서 발급계좌의 예금주, 주금납입 수납대행의뢰 주체가 되므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기타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상호, 목적 등 주요 사항을 미리 정해 공시하는 '정관(定款)'을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까다로워 보이지만, 다행스럽게도 홈페이지 내에 정관 표준 양식이 있으니 필요한 부분만 수정해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잔액 증명 신청(3단계), 법인등록 면허세 신고/납부(4단계), 법인 설립 등기신청(5단계), 사업자 등록 신청(6단계), 4대보험 신고(7단계)가 있는데, 사이트에 기재된 순서대로 클릭하면서 따라가면 큰 어려움 없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글 정지원 변호사(현대중공업 국내법무팀)





눈썰미 퀴즈

※ 그림에 다른 곳이 4군데 있습니다. 3곳 이상을 찾아보세요. / 첨부된 업서에 표시해 사보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퀴즈 당첨자

| 현대중공업 · 현대미포조선 |

울산대학교병원 종합건강검진권(1매)

김연삼 현대중공업 SPAR공사부

호텔현대울산 뷔페권(2인)

박종현 현대미포조선 건조2부

현대예술관 영화관람권(2매)

김동학 현대중공업 BERGADING공사부

김한나 현대미포조선 총무부

복지회관 수영장 이용권(1개월)

윤창하 현대중공업 동덕기업(주)

김선기 현대미포조선 품질경영부

울산현대축구단 사인볼(1개)

김대환 현대중공업 플랜트설비생산부

김동현 현대중공업 엔진기계가공부

강희철 현대중공업 대조립1부

이일수 현대미포조선 선형의장부

정호택 현대미포조선 품질경영부

후생시설 이용권(1만원)

황인열 현대중공업 기획실 사업개발팀

김진일 현대중공업 선형도장부

황시우 현대중공업 선실생산2부 백창훈 처

정영훈 현대중공업 조선생산품질지원부

백정순 현대중공업 회전기연구개발실

배영준 현대중공업 영업기획부

황상용 현대미포조선 품질경영부

채수관 현대미포조선 기계의장부

아산체육관 아이스링크 이용권

이병주 현대중공업 의장생산부

이육현 현대중공업 특수선생산2부

구영서 현대중공업 중기지원부

OUTBACK 식사권

김윤정 현대중공업 선각기술부

최동구 현대중공업 해양품질경영부

전병대 현대미포조선 선형의장부



지난호 정답



사보를 읽고

황인열 | 현대중공업 기획실 사업개발팀

'미래를 말하다' 코너에 실린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기사가 흥미로웠습니다. 먼 미래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하나씩 실현되면서 우리도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현 | 현대미포조선 건조2부

사보를 통해 지난 1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조선시황은 어렵다고 하지만, 다가오는 2017년에는 다같이 열심히 뛰었으면 합니다.

김민용 | 현대삼호중공업 구조설계부

12월 사보를 보며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고민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현대삼호중공업 |

호텔현대목포 뷔페권(2인)

김민용 구조설계부

사내 매점 간식교환권(1만원)

박현수 기계시운전부

김달오 의장1부

채원선 의장3부

현주호 건조2부

이운의 대조립부

호텔현대목포 케이크 교환권(1매)

전경열 판넬조립부

윤혜림 선각기술부

신안 천일염

조용룡 판넬조립부

박철현 의장1부



"알프레드 시슬레(1839~1899), 모레 유진 무소르 거리 : 겨울"

겨울

흐릿하게 보이는 마을로 통하는 눈 덮인 거리에 삼삼오오 모여있는 사람들.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 알프레드 시슬레(Alfred Sisley, 1839~1899)의 후기 작품, '모레 유진 무소르 거리: 겨울'입니다.

알프레드 시슬레는 클로드 모네, 오귀스트 르누아르 등과 함께 당대 인상주의 선구자로 평가 받는 거장입니다. 하지만 살아 생전에는 인상주의의 아류, 유사 모네로 평가절하 당했는데요. 사실 인상주의 창시자 카미유 피사로가 진정한 인상주의 작가를 묻는 질문에 '단 한 작가 시슬레'라고 답할 만큼 뛰어난 예술가입니다.

시슬레는 눈과 비를 안개처럼 느껴지게 하는 기법, 투명한 물의 반사 효과 등 당시 성공한 인상주의 화가들과 차별화되는 그만의 개성으로 꾸준히 작품을 그렸습니다.

인상파 중에서도 순수한 풍경화가로 인정받는 알프레드 시슬레. 은은한 색채와 부드러운 느낌이 일품인 그의 작품과 함께, 따뜻한 정유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유년 새해를 밝히는 태양이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모든 임직원이 마음을 모아 희망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